



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
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2010년 8월 9일

해외경제연구소
성동원 책임연구원

 **한국수출입은행**

목차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1. 기업 현황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I. 설문조사 개요

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현황 및 수출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연구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

구 분	내 용
설문조사 대상	신재생에너지협회 회원사 329개사,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3,109개사 등 해당사업 기획담당자
설문조사 진행	(주)리서치랩 대행(전화 및 이메일 발송)
설문조사 실시 기간	2009.3.25. ~ 2009.4.17.
유효 표본	305개(신재생에너지 협회 회원사 193개, 전문기업 112개)
설문조사 항목	기업일반사항, 사업관련사항, 기술수준, 정부 지원정책, 수출애로사항, 금융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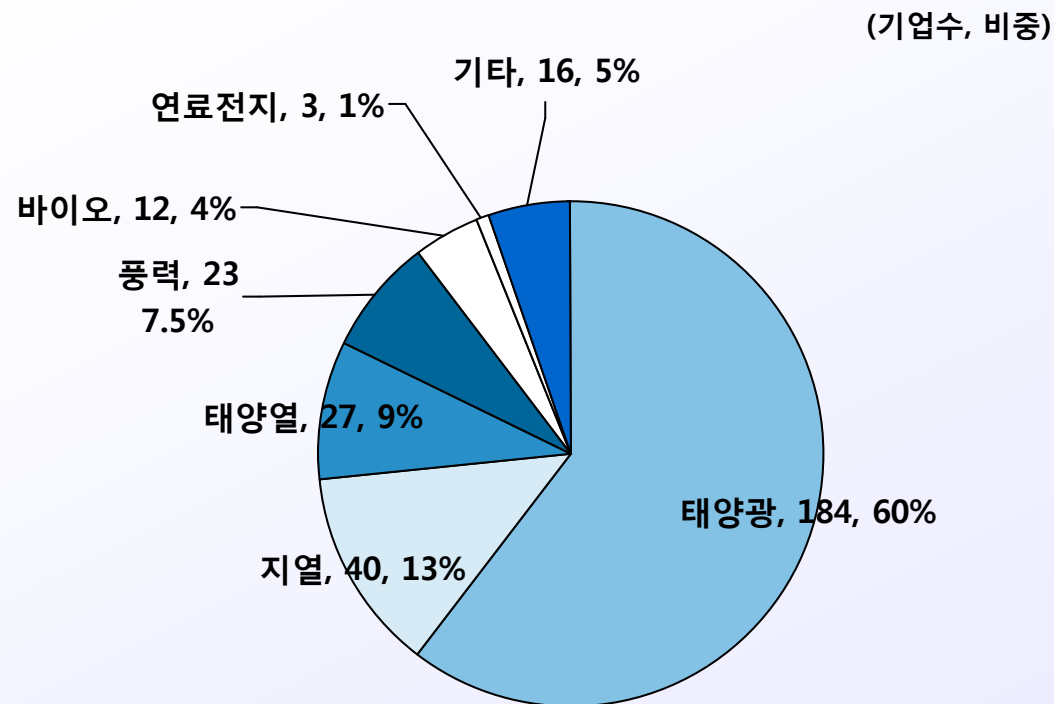
☞ 금일 본 자료를 통해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고, 향후 정책결정 및 관련 기업의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램

I. 설문조사 개요

설문 응답기업의 에너지원 별 분포

본 설문에 응답한 기업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(60.3%)이 가장 높았으며, 지열(13.1%), 태양열(8.9%), 풍력(7.5%), 바이오(3.9%)가 그 뒤를 이음

설문 응답기업의 에너지원 별 분포



주: 주력 신재생에너지 한 가지만 선택, 2008년 기준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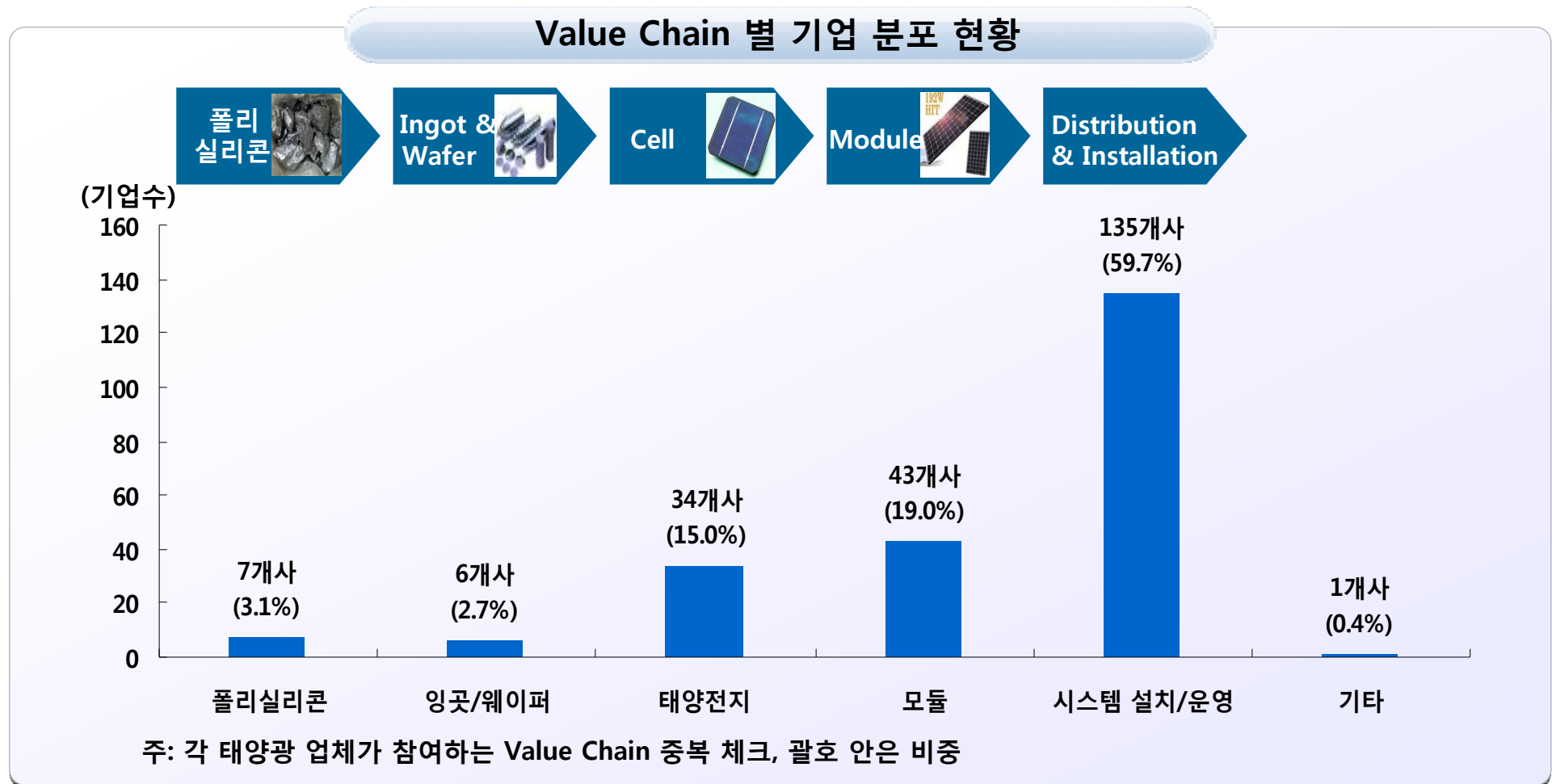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기업 현황 | (1) Value Chain별 기업 분포 |
| 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 | (2) 기업규모 및 매출규모 |
| 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 | (3) 사업진행단계 |
| 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 | (4) 수출현황 |
| 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 | (5) 투자 목적 및 규모 |
| | (6) 애로 사항 |
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1. 기업 현황

(1) Value Chain별 기업 분포

국내 업체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매우 활발하나, Value Chain 중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Downstream 부문, 즉 '시스템 설치/운영'에 참여 기업 수가 편중되어 있는 구조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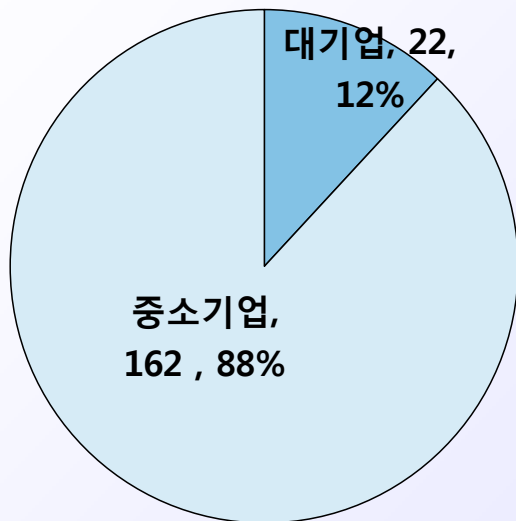
1. 기업 현황

(2)-1 기업규모

전체 기업 수는 중소기업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, 대규모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폴리실리콘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더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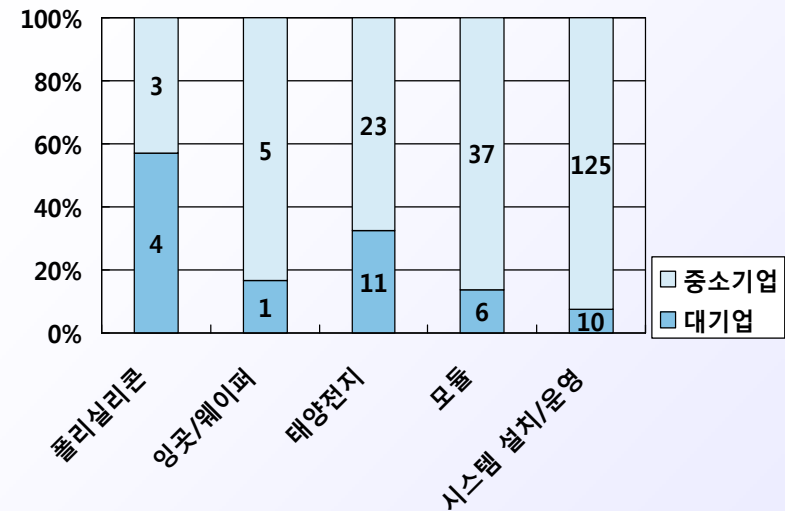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 비중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 기업규모

(기업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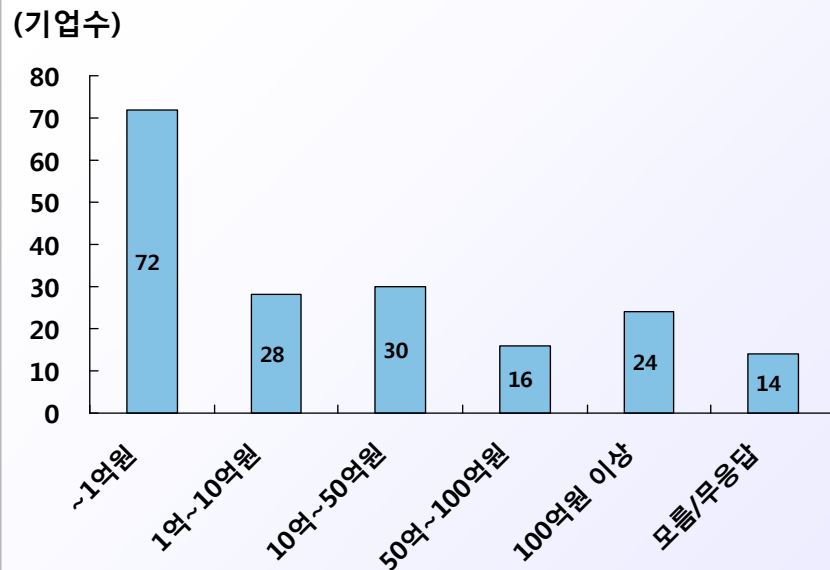
- 폴리실리콘(57.1%), 태양전지(32.4%)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비중이 높음
- 시스템 설치/운영의 중소기업 비중은 92.6%에 달함

1. 기업 현황

(2)-2 매출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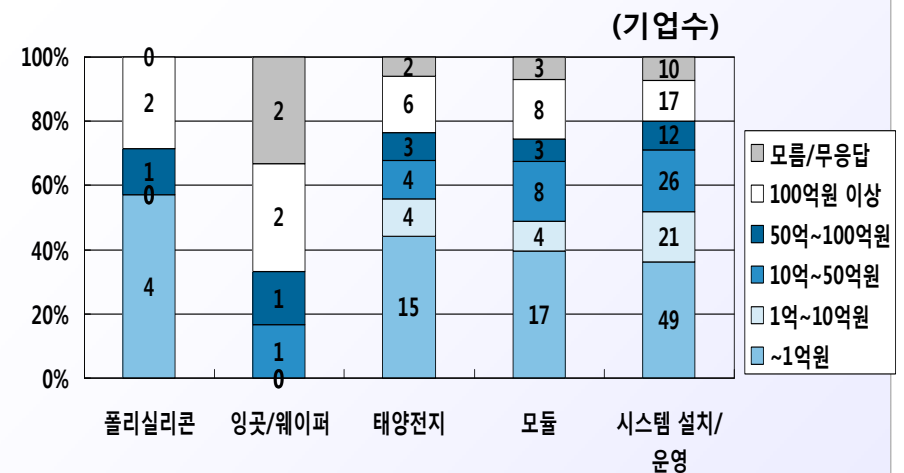
전체적으로는 연매출규모가 1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, 폴리실리콘, 잉곳/웨이퍼와 같은 Upstream 분야는 연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의 비중이 높음

매출규모



- 1억원 미만(39.1%)의 업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
Value Chain별 매출규모



- Upstream 업체는 매출규모 50억원 이상의 기업비중이 높음
(단, 폴리실리콘의 경우 매출규모 1억원 미만의 기업비중 역시 높게 나타남)
- Downstream 업체는 1억원 미만의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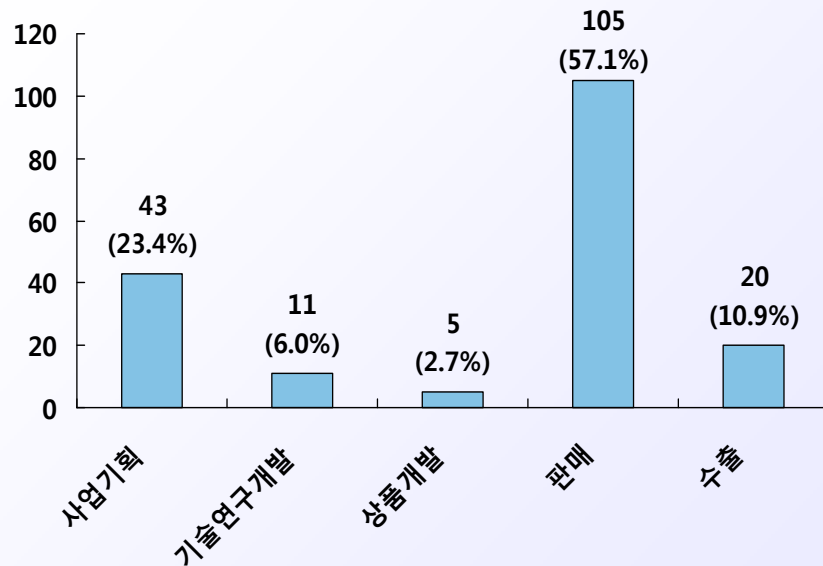
1. 기업 현황

(3) 사업진행단계

국내 태양광 업체의 사업 진척이 상당히 진행되어 현재 판매단계(57.1%)에 있는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, 수출단계 기업은 10.9%임. 특히 Upstream 업체의 사업진척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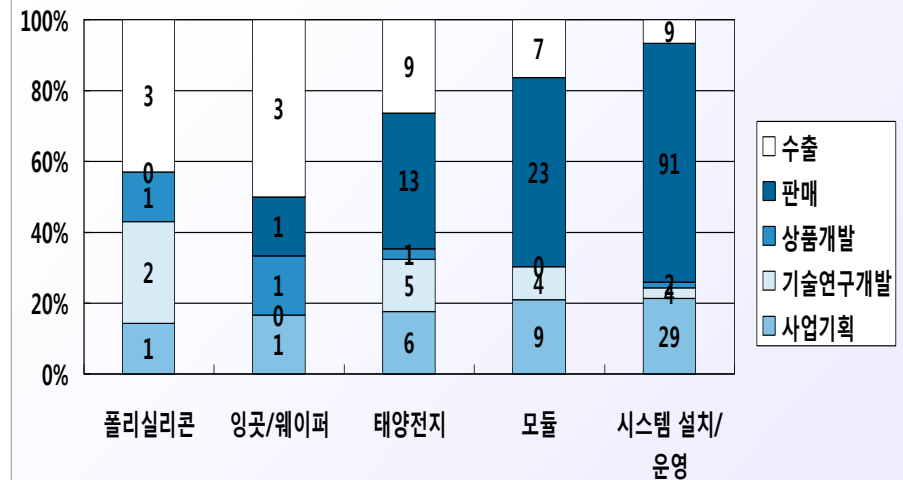
사업진행단계

(기업수)



Value Chain별 사업진행단계

(기업수)



• Upstream 산업의 수출단계 비중이 높게 나타남

- 폴리실리콘(42.9%), 잉곳/웨이퍼(50.0%), 태양전지(26.5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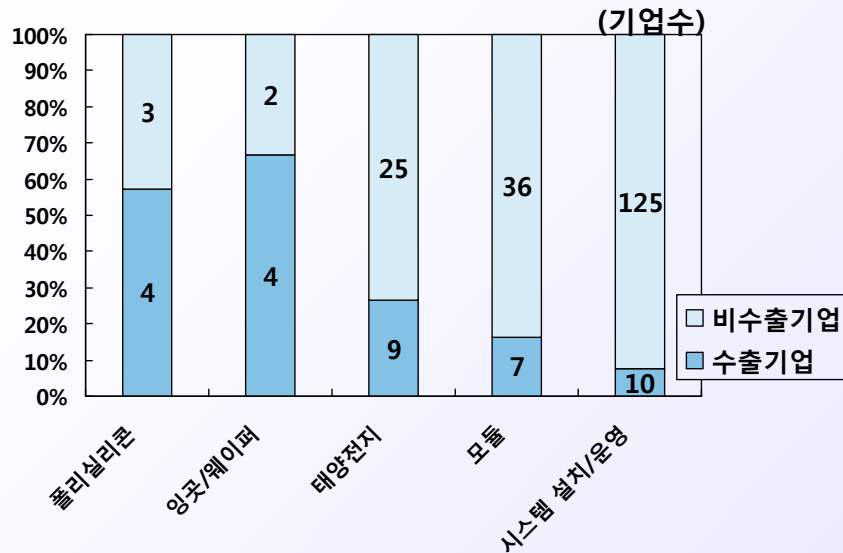
• 태양전지~시스템 설치/운영은 판매단계의 비중이 높음

1. 기업 현황

(4)-1 수출현황_수출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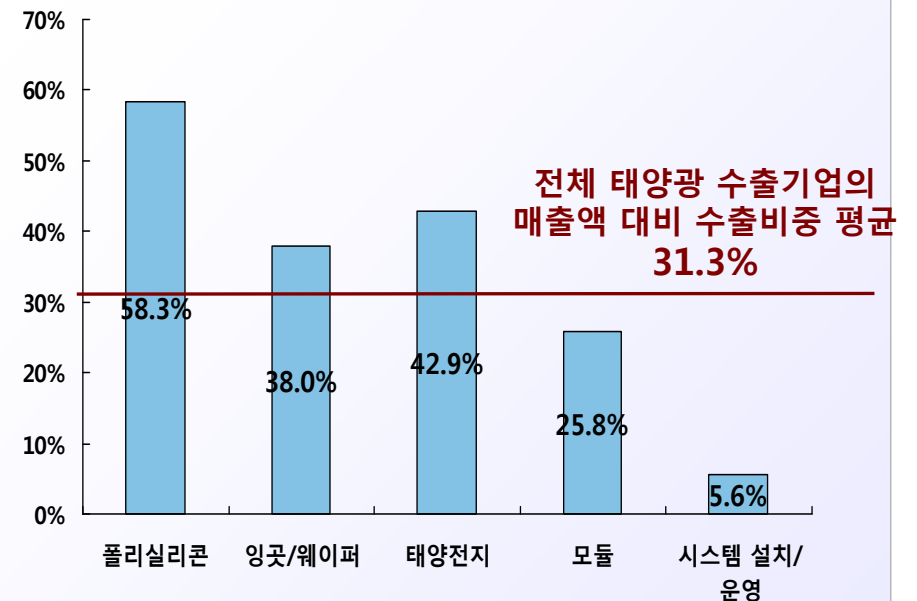
전체 태양광 기업 중 수출기업의 비중은 12.5%로 아직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, Upstream의 경우 수출기업 비중이 50% 이상으로 높았고, 수출기업의 수출비중(58.3%)도 높게 나타남

Value Chain 별 수출기업 비중



- Upstream은 수출기업 비중이 높은 반면 Downstream은 수출기업 비중이 낮음

매출액 대비 수출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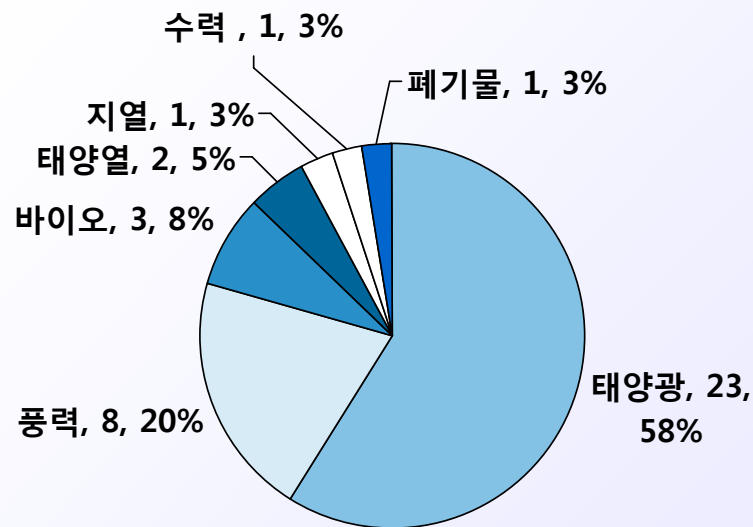
- Upstream 업체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Downstream 업체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음

<참고> 전체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

응답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/서비스 기업 중 12.8%, 즉 39개사만이 수출하고 있음. 태양광 수출기업이 23개사로 가장 많았으나, 동일 에너지원 내에서의 수출기업 비중은 풍력(34.8%)이 가장 높음.

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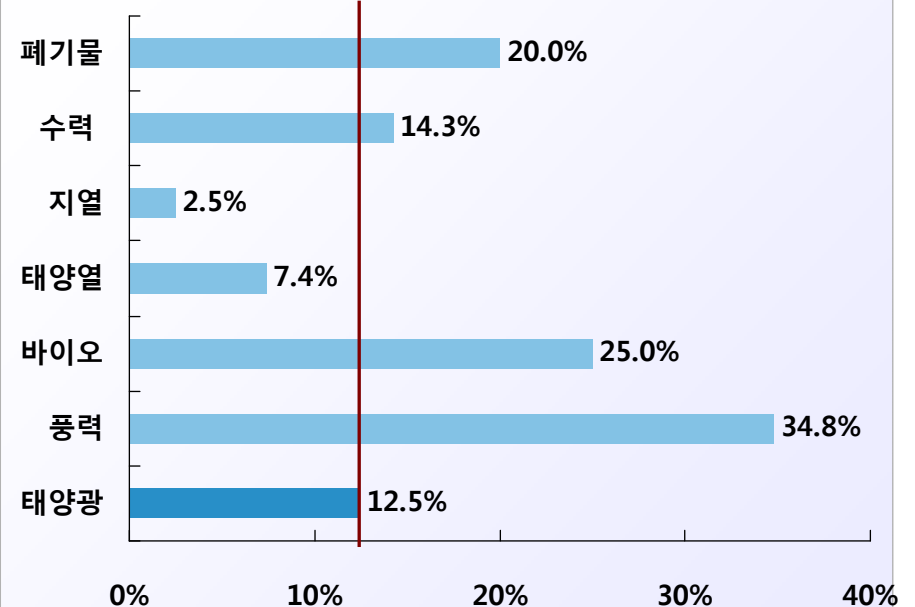
(기업수, 비중)



주: 총 수출기업 수 39개사

에너지원별 수출기업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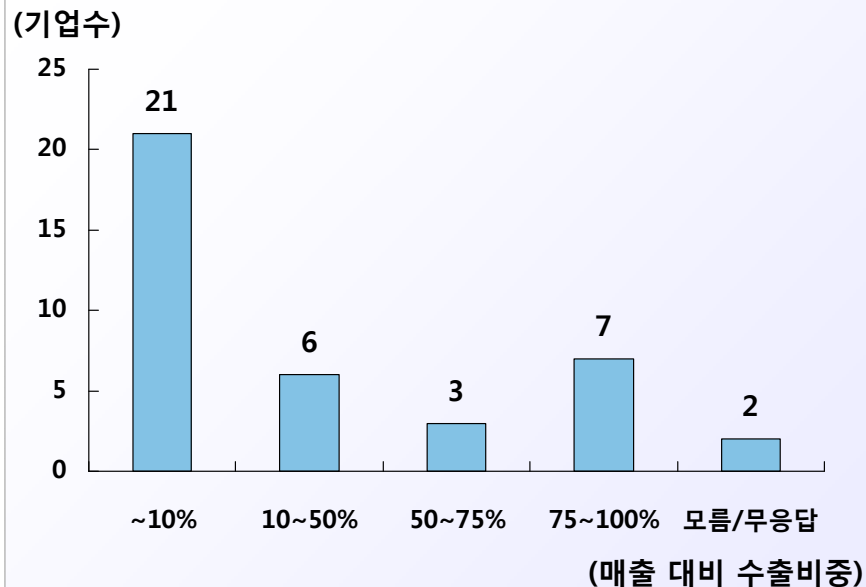
전체 신재생 에너지 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
12.8%



<참고> 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의 수출 매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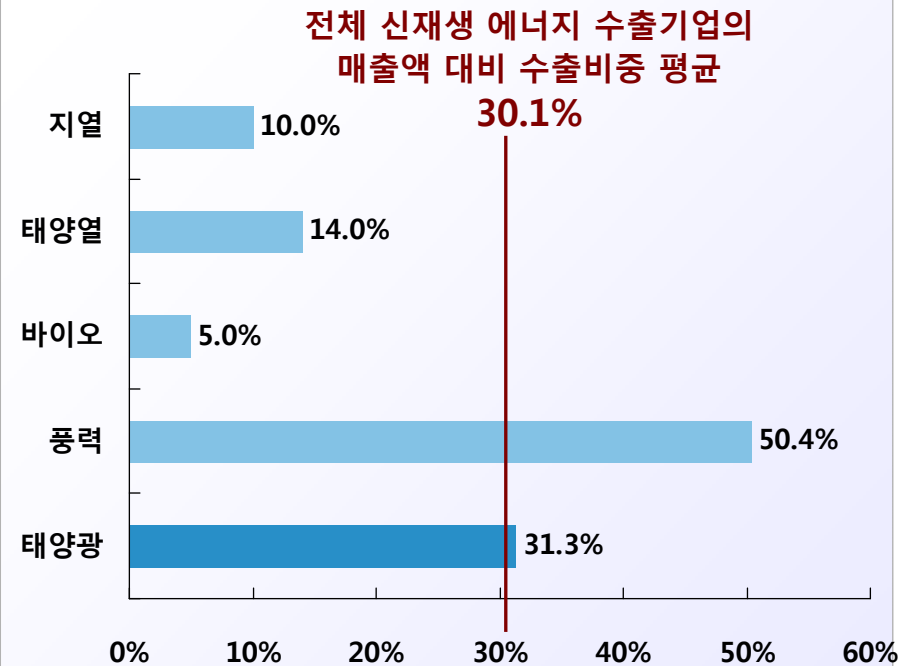
신재생에너지 수출 기업 39개사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.1%로 나타남

수출비중 분포



- 수출비중 10%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(53.8%)을 차지
- 75~100%로 응답한 기업 비중(17.9%)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

에너지원 별 수출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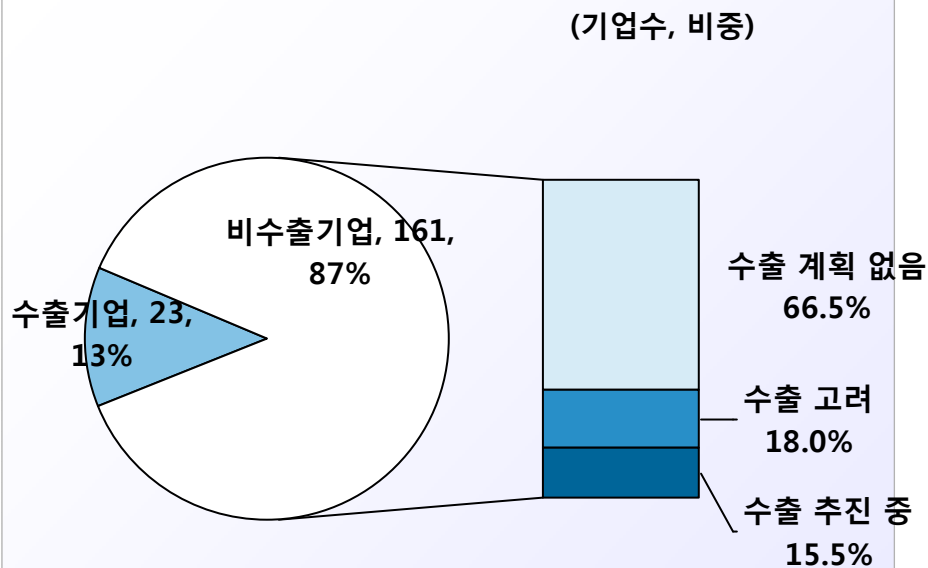
- 풍력 수출기업의 수출비중 평균은 50.4%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

1. 기업 현황

(4)-2 수출현황_수출계획

非수출기업 중 향후 수출을 검토 중에 있는 기업비중은 33.5%이고, 수출화까지 1~3년(55.6%), 1년 이내(25.9%)가 걸릴 것으로 예상

非수출 기업의 수출화 계획



- 非수출기업의 66.5%가 향후 수출계획이 없는, 즉, 내수시장 중심의 기업 비중이 높음

수출화 소요 기간



- 향후 수출계획 중인 기업의 경우 Upstream 업체일수록 비교적 단기간 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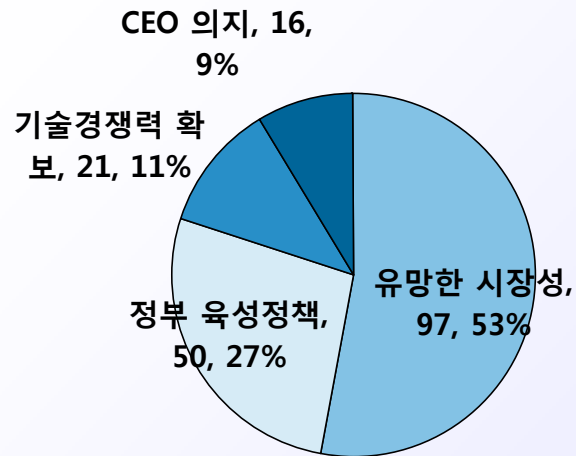
1. 기업 현황

(5)-1 투자목적

투자 목적은 유망한 시장성이 정부 육성정책보다 높게 나타나, 현재는 비록 정책 주도의 시장이나 향후 시장성을 보고 투자 결정한 것으로 보임

투자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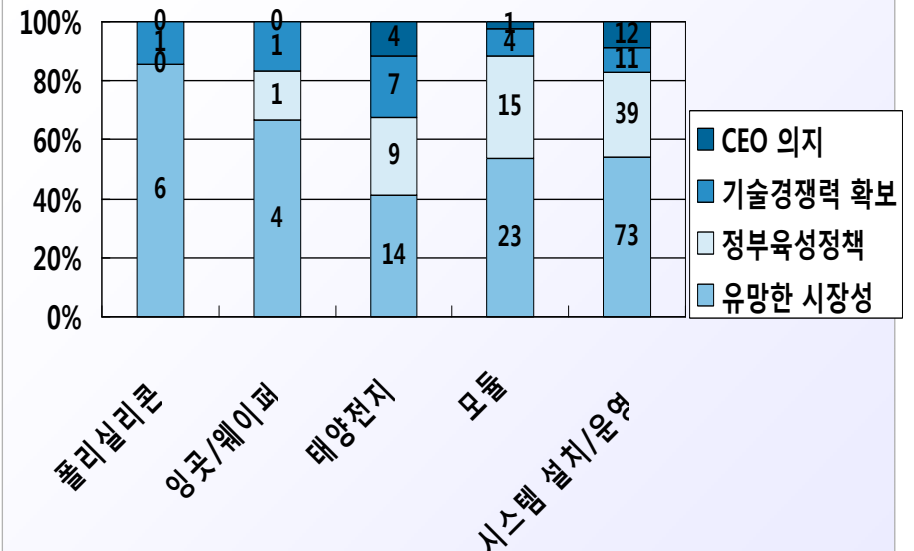
(기업수, 비중)



- 태양광 업체의 사업 투자목적은 유망한 시장성(52.7%), 정부 육성정책(27.2%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Value Chain별 투자목적

(기업수)



- 폴리실리콘(85.7%), 잉곳/웨이퍼(66.7%) 업체의 유망한 시장성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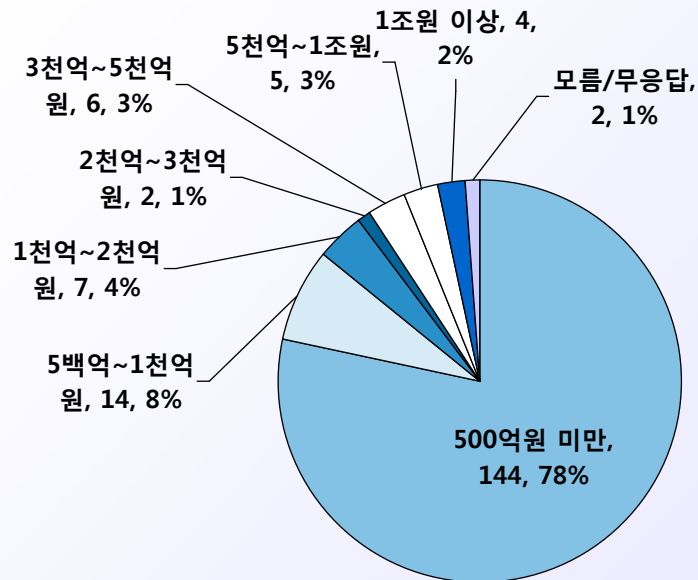
1. 기업 현황

(5)-2 투자규모

투자규모 5백억원 미만의 업체 비중(78.3%)이 가장 높고, Upstream으로 갈수록 투자규모가 높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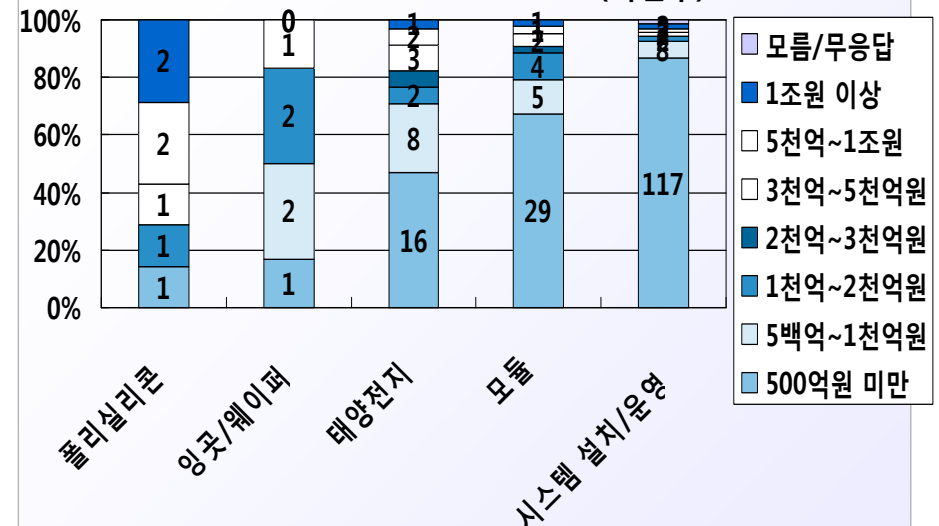
투자규모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 투자규모

(기업수)



- Upstream으로 갈수록 투자규모가 높게 나타나, 폴리실리콘 업체의 경우 투자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비중이 57.2%에 달함
- 시스템 설치/운영 업체는 투자규모 500억원 미만인 비중이 86.7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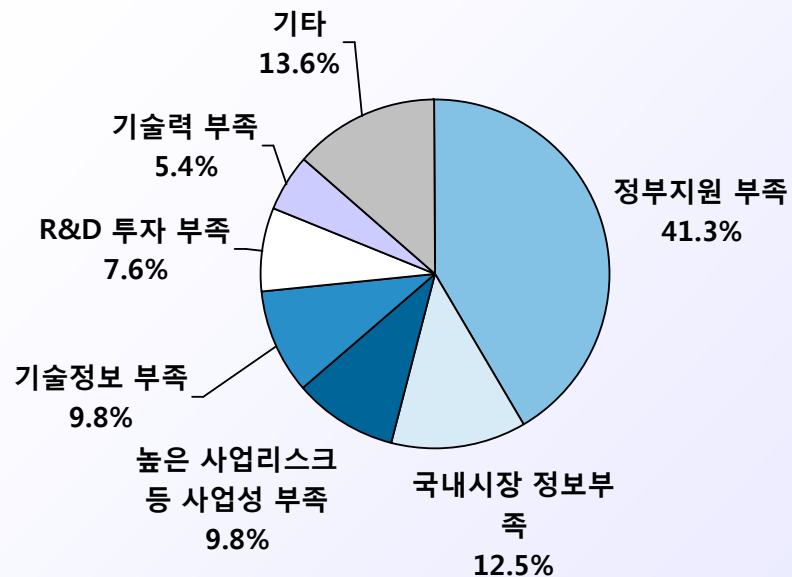
1. 기업 현황

(6) 애로사항

태양광 업체의 애로사항은 정부지원 부족(41.3%), 국내시장 정보부족(12.5%) 순으로 나타났으나, Value Chain별로 큰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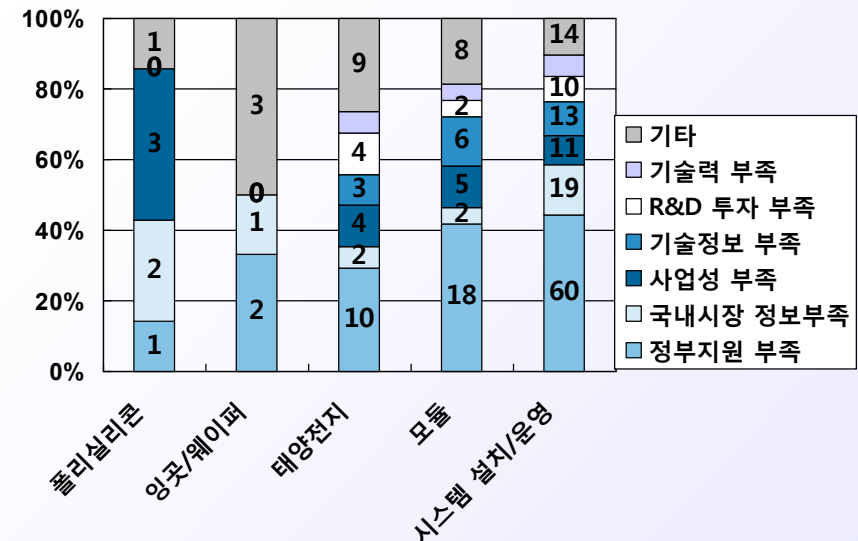
사업운영 애로사항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 사업운영 애로사항

(기업수)



- 대기기업 비중이 높은 폴리실리콘 업체는 높은 사업 리스크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,
-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잉곳/웨이퍼 이하 Downstream 업체는 정부지원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1. 기업 현황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4. 수출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1) 시장형성 단계

국내

해외

(2) 경제성 전망

경제성 여부

경제성이 없는 이유

경제성 확보 예상 시기
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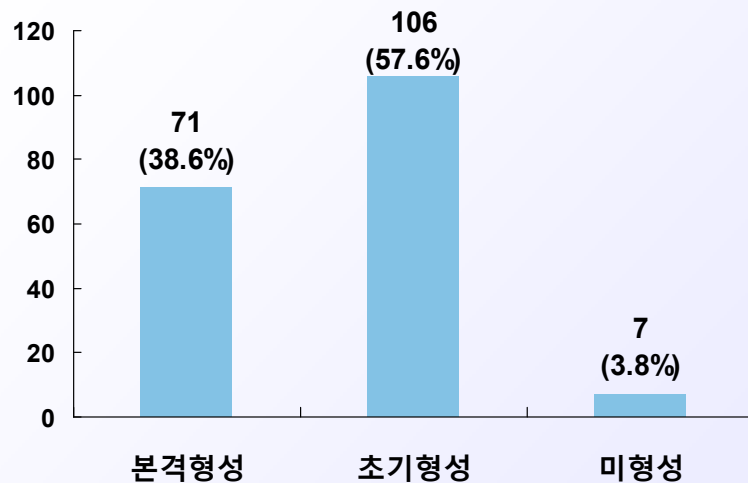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(1)-1 국내시장 형성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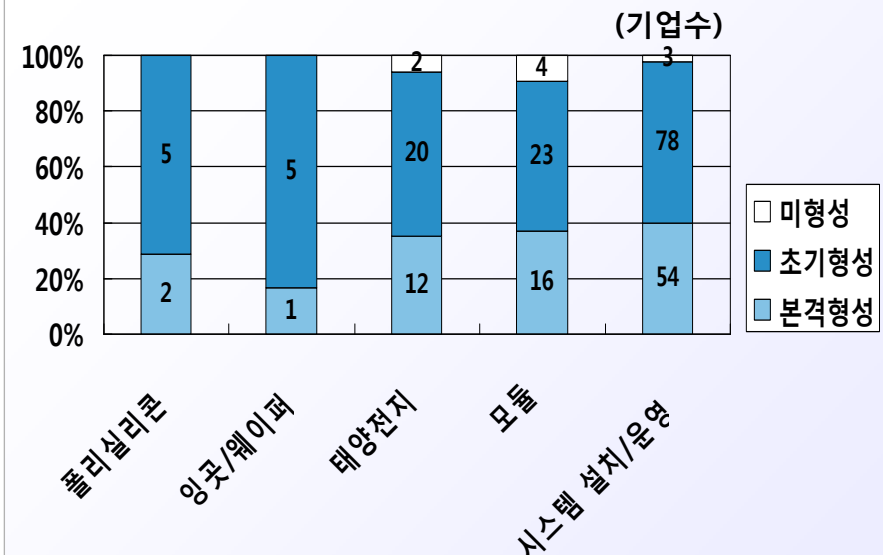
태양광 발전의 국내시장은 '초기 형성' 단계에 있다는 의견이 많으나, 본격형성 단계로 판단하는 비중도 높은 편임. Downstream 업체는 국내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인식.

국내시장 형성단계

(기업수)



Value Chain 별
국내시장 형성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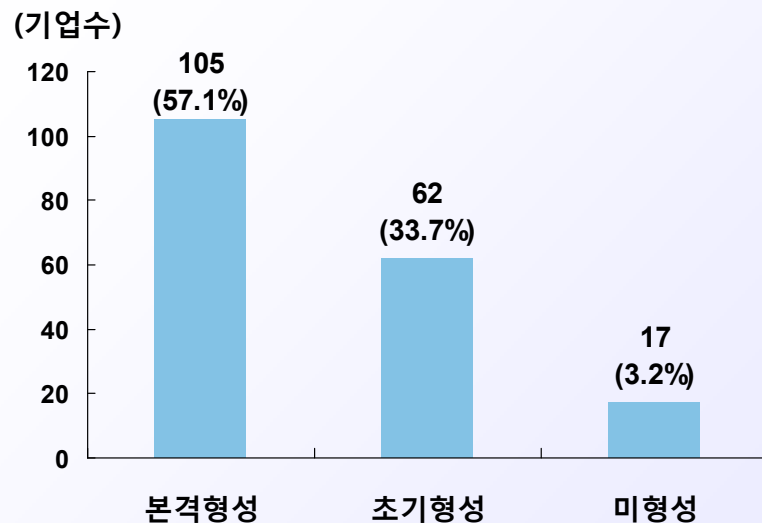
- 수출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Upstream 분야 기업 중에 국내시장을 초기형성 단계로 판단하는 비중이 높음
 - 폴리실리콘 71.4%, 잉곳/웨이퍼 83.3%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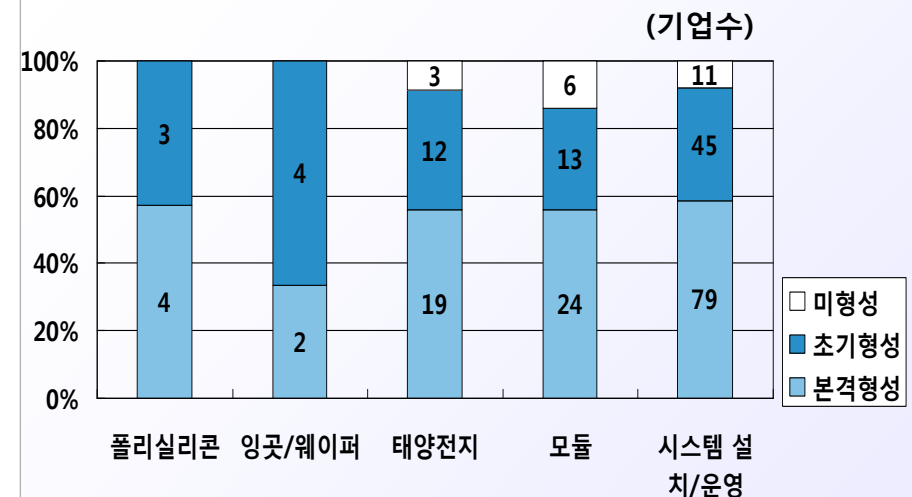
(1)-2 해외시장 형성단계

해외시장의 경우 국내시장보다 활성화된 '본격 형성' 단계에 있다는 의견이 높음

해외시장 형성단계



Value Chain 별
해외시장 형성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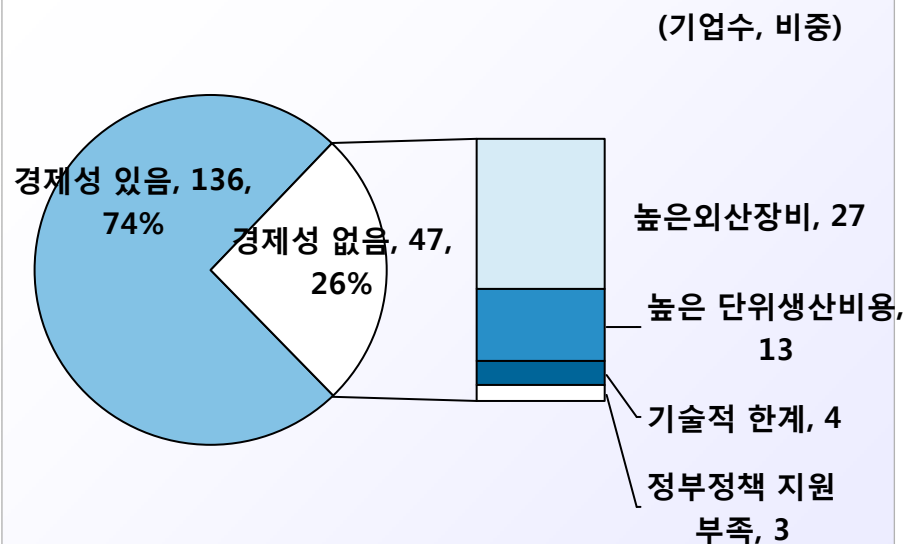
- Downstream 업체는 국내/해외시장 모두 본격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Upstream 업체에 비하여 높음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(2)-1 경제성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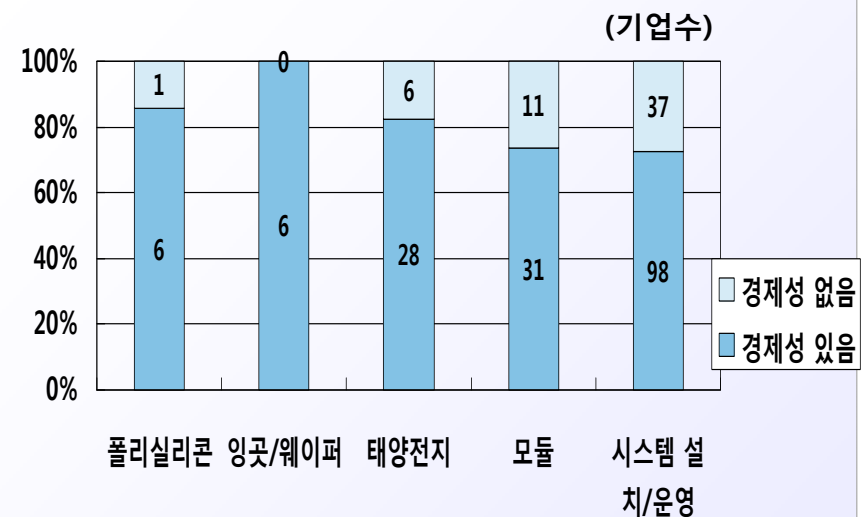
현재의 여건 하에서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(73.9%)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Upstream 시장 참여 기업이 경제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

경제성 여부



-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높은 외산장비 의존, 높은 단위생산 비용 등을 꼽음

Value Chain 별 경제성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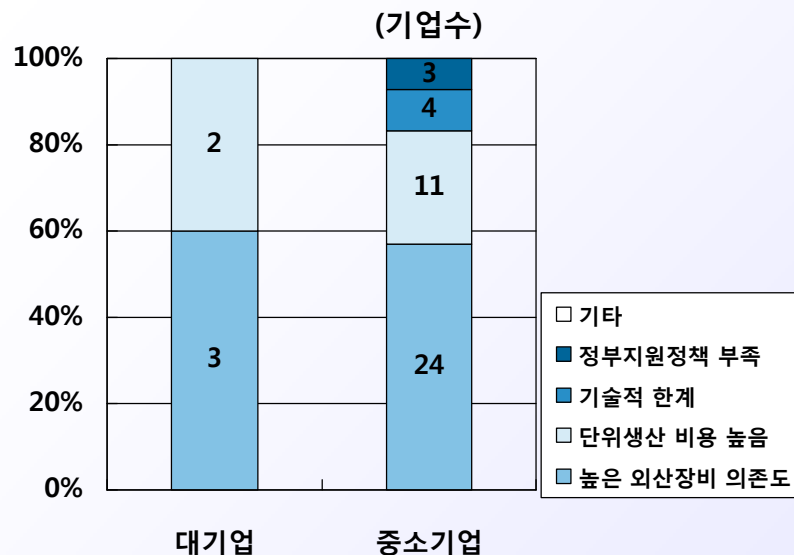
-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던 잉곳/웨이퍼 업체는 모두 경제성 있다고 판단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(2)-2 경제성이 없는 이유

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주로 높은 외산장비 의존도를 지적하였으며, Value Chain 별로 경제성이 없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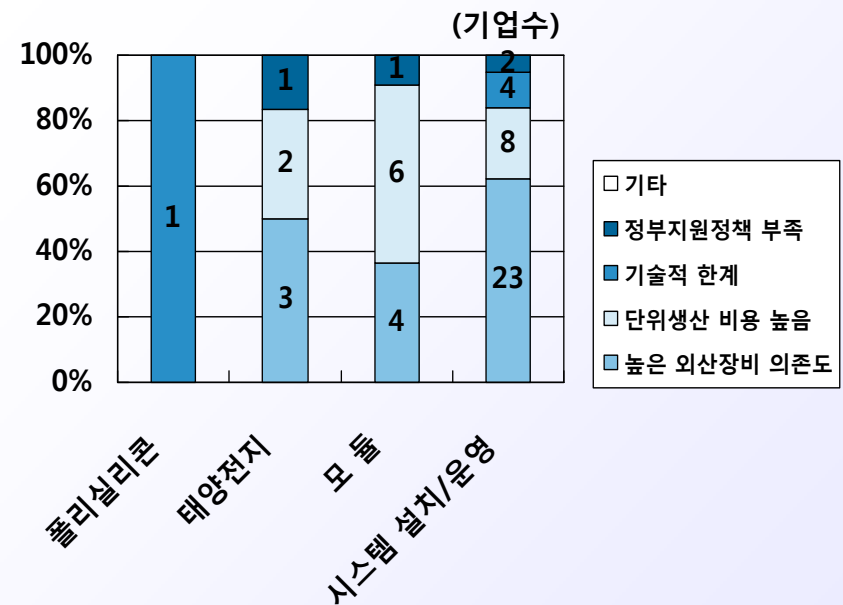
경제성이 없는 이유



• 대기업, 중소기업 모두 높은 외산장비 의존도에 대한 지적이 많음

- 대기업의 경우 시장 협소에 따른 높은 단위생산비용도 지적함
-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정책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.1%에 이름

Value Chain 별 경제성이 없는 이유



- 폴리실리콘 업체는 기술적 한계가 경제성이 없는 이유라고 응답
- 모듈 업체는 단위생산 비용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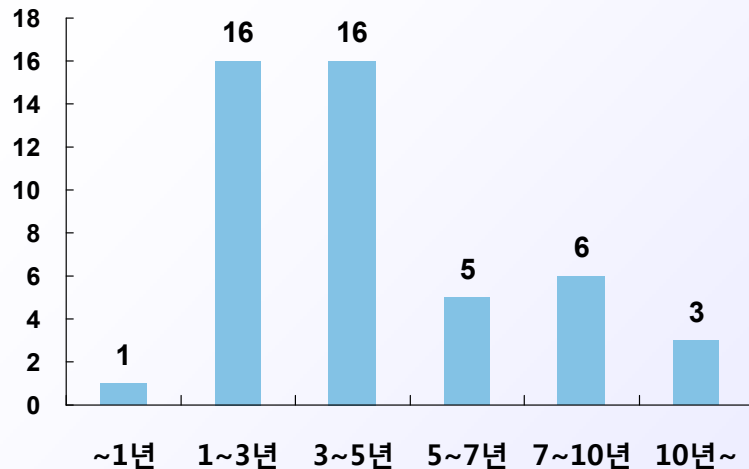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(2)-3 경제성 확보 예상시기

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업체들 대부분(70.1%)도 경제성이 5년 이내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경쟁이 치열한 Downstream 분야의 기업들의 경제성 확보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.

경제성 확보 예상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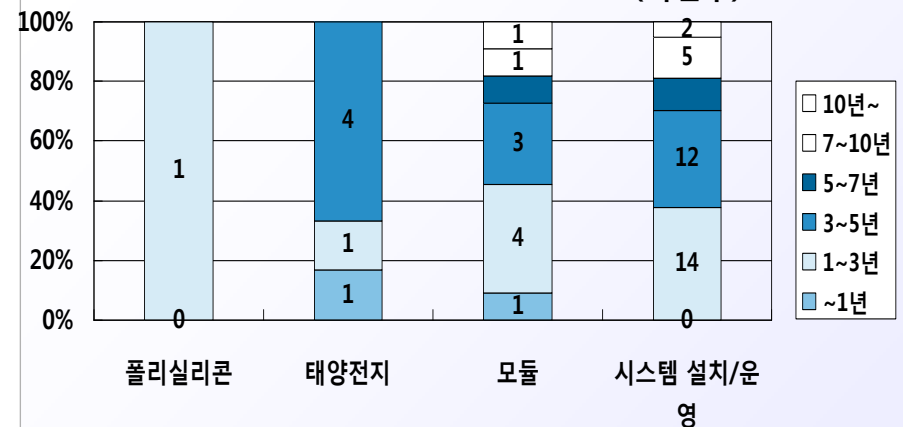
(기업수)



- 경제성 확보하는 데에 1~3년(34.0%), 3~5년(34.0%) 걸릴 것으로 보는 기업 비중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

Value Chain별 경제성 확보 예상시기

(기업수)



- 폴리실리콘은 단기간(1~3년) 내에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봄
- 태양전지는 3~5년으로 판단한 비중이 가장 높음
- 모듈, 시스템 설치/운영 등 Downstream 업체는 5년 이상으로 보는 기업 비중이 20~30% 나타남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1. 기업 현황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1) 기술수준 및 장비국산화율

(2) 선진국과 기술대등 소요기간

(3) 기술열위 원인

(4) 기술력 확보방안

(5) 기술확보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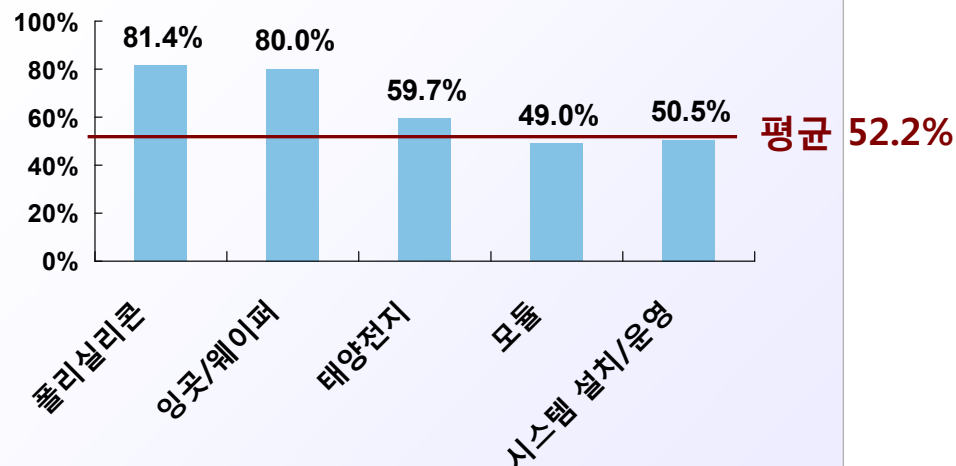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(1) 기술수준 및 장비국산화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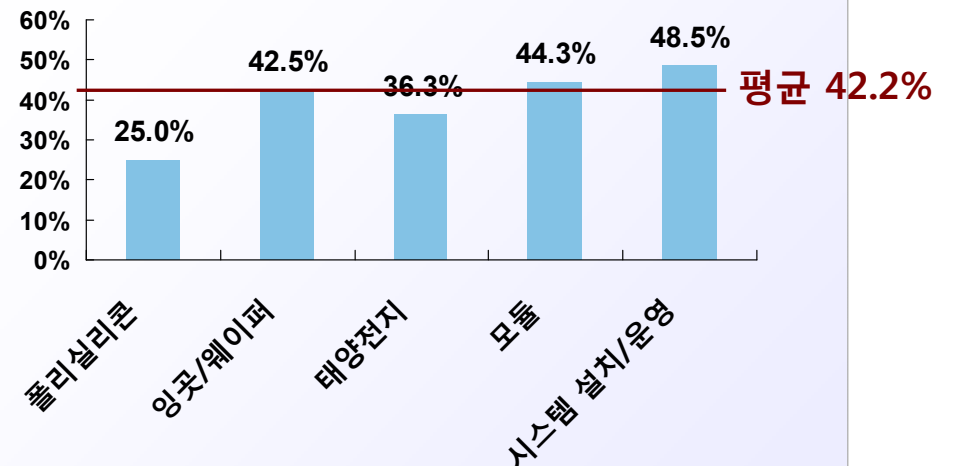
선진기술과 대비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수준(52.2%) 및 제조업 장비 국산화율(42.2%)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

Value Chain별 기술수준



- 투자규모가 큰 기업 비중이 큰 Upstream 업체가 기술 수준을 더욱 높게 판단

제조업체의 장비 국산화율



- 기술수준과는 반대로 Downstream 업체의 장비국산화율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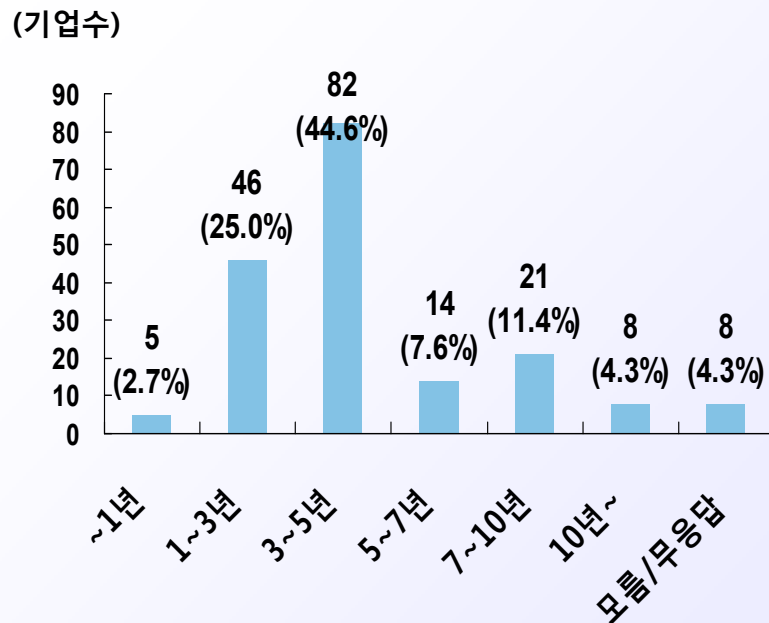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(2) 선진국과 기술대등 소요기간

선진기술과는 약 3~5년 정도(44.6%)의 격차가 있다고 판단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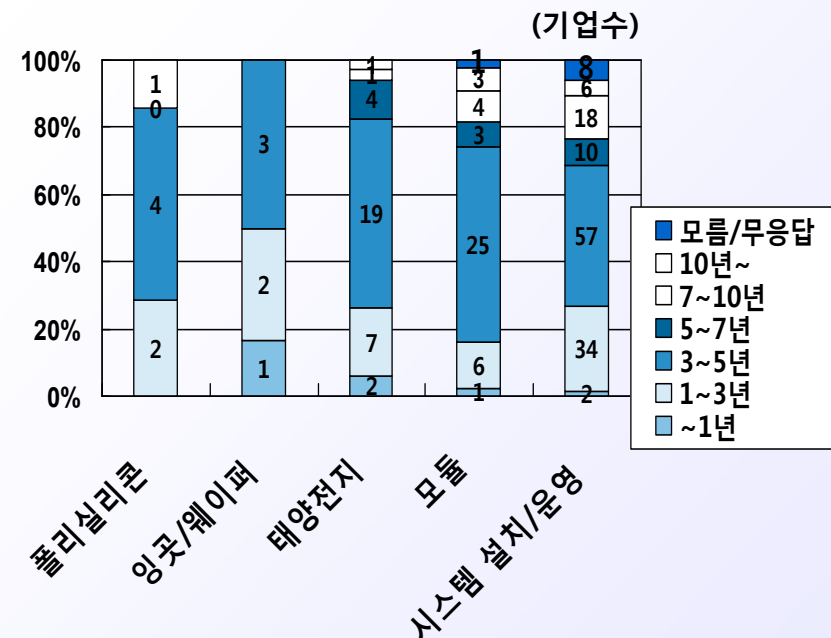
잉곳/웨이퍼 업체는 타 Value Chain 대비 단기간 내에 선진기술과 대등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
선진국과 기술대등 소요기간



- 선진국 기술과 대등해지기까지 1~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판단

Value Chain별
선진국과 기술대등 소요기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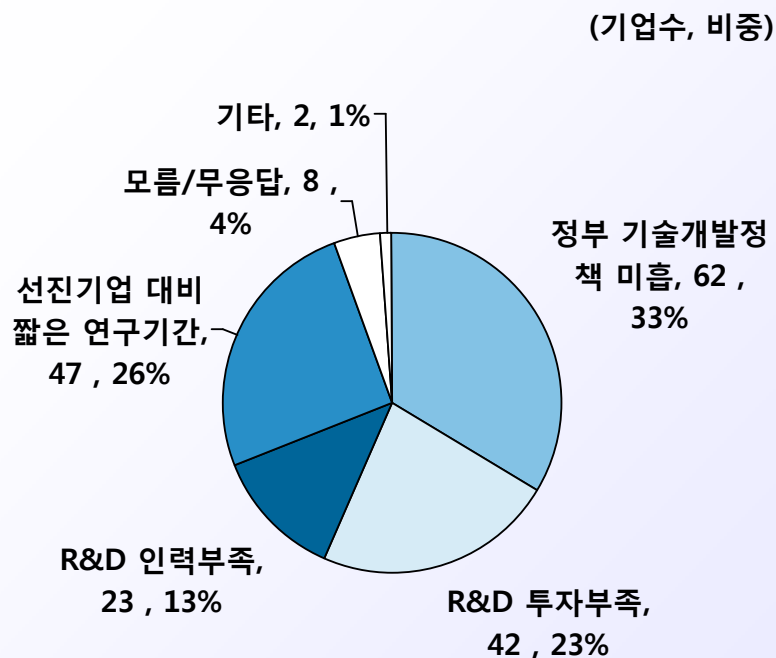
- 잉곳/웨이퍼 업체는 선진기술 대등 소요 기간을 타 Value Chain에 비하여 짧게 판단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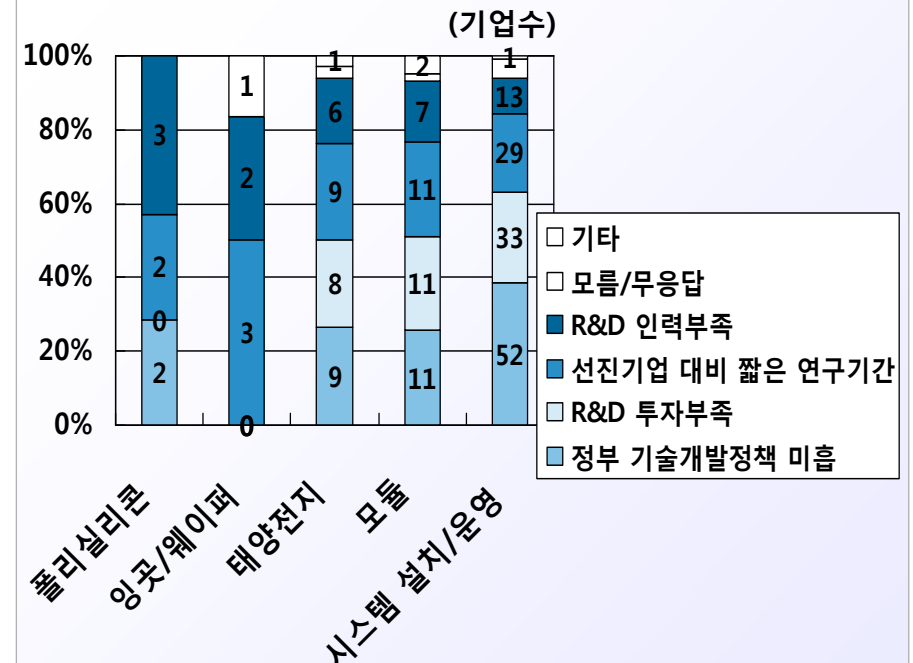
(3) 기술열위 원인

선진국 대비 기술열위 원인으로는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 미흡(33.7%), R&D 투자 부족(22.8%)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, Value Chain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남

기술열위 원인



Value Chain별 기술열위 원인



- Upstream은 기술인력 부족, 선진기업 대비 짧은 연구기간이 가장 큰 원인
- Downstream은 정부의 기술정책 미흡, R&D 투자 부족을 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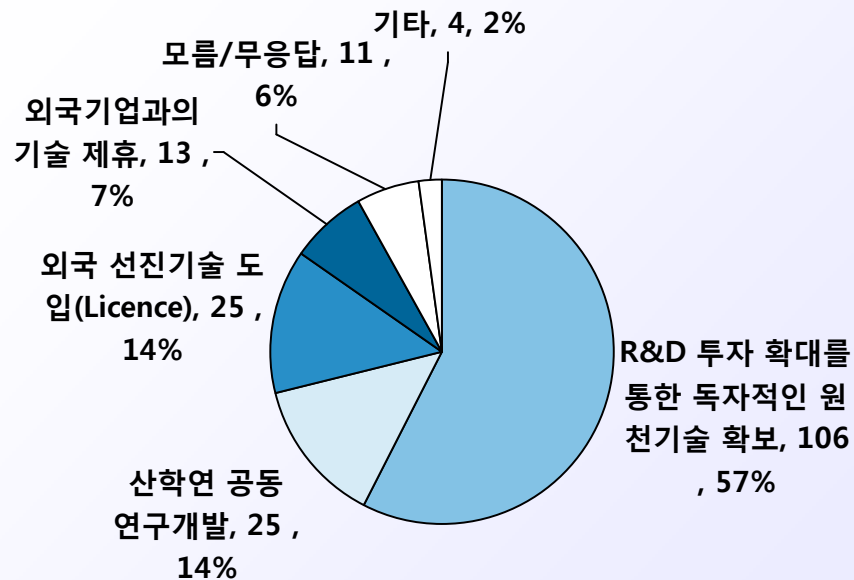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(4) 기술력 확보방안

기술력 확보방안으로서 R&D 투자확대를 통한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(57.6%)가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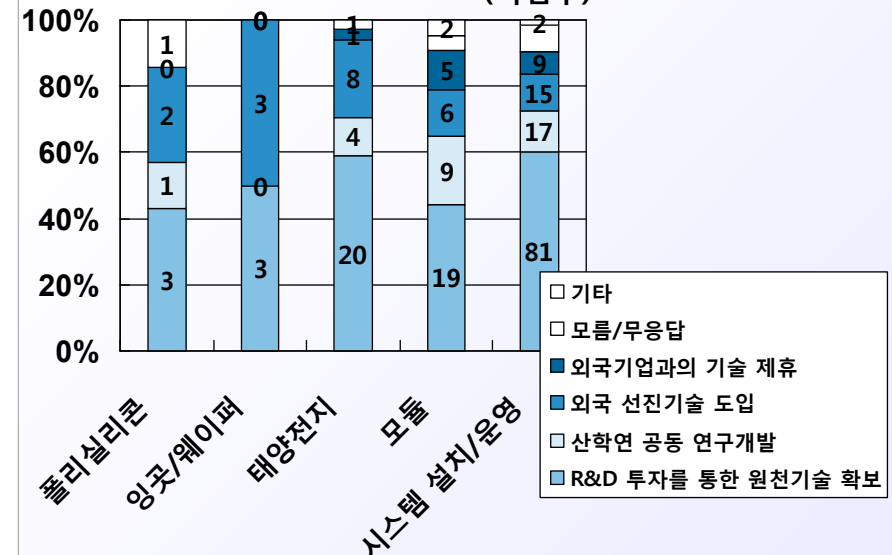
기술력 확보방안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 기술력 확보방안

(기업수)



- 모든 Value Chain에서 R&D 투자 확대가 가장 높음
- Upstream은 외국 선진기술 도입으로 응답한 비중도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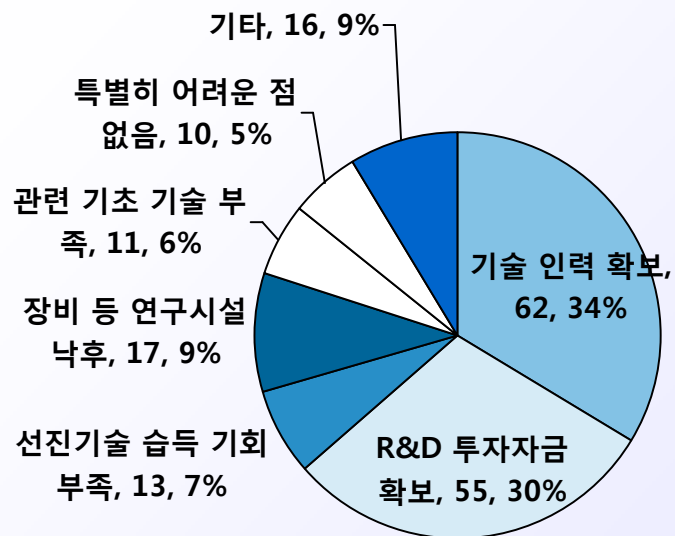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(5) 기술확보 애로사항

기술확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인력 확보와 R&D 투자 자금 확보로 나타남

기술확보 시 애로사항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
기술확보 시 애로사항

(기업수)



- 폴리실리콘 업체는 기술인력 확보로 응답한 비중(42.9%)이 특히 높음
- 잉곳/웨이퍼, 시스템 설치/운영 업체는 투자자금 확보가 높게 나타남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1. 기업 현황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1) 지원정책 이용 현황

(2) 정책 효과성

(3) 정책 이슈

(4) 수출 애로사항

(5) 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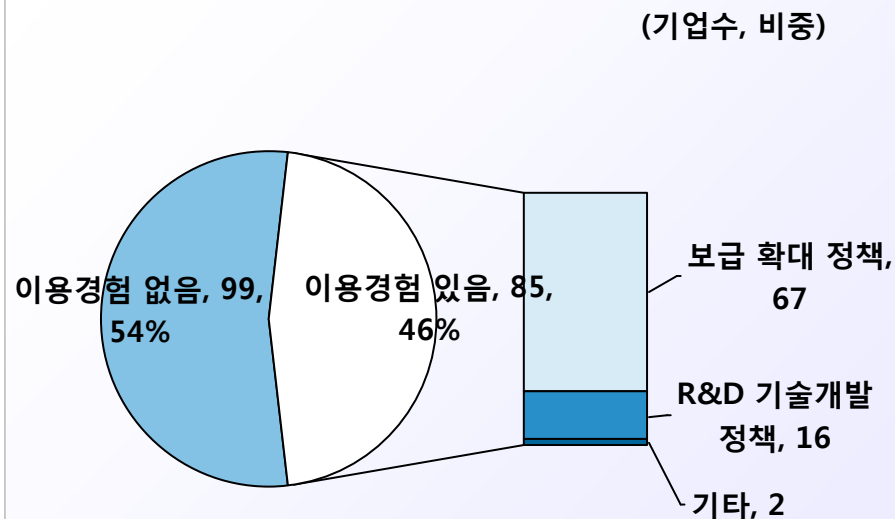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1) 지원정책 이용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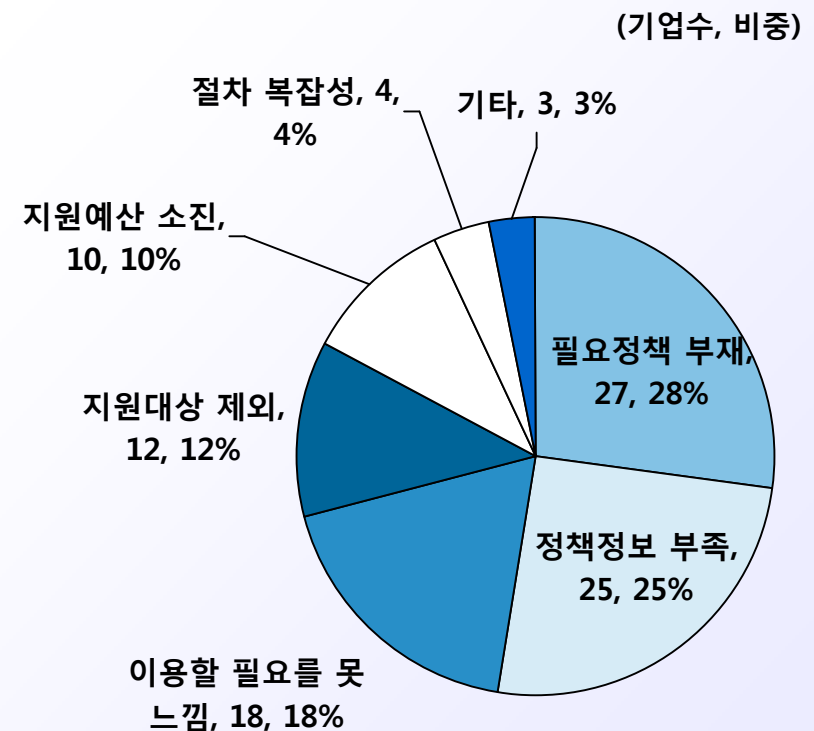
가장 많이 활용한 정책은 보급확대 정책(71.6%)이며,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'정책 부재'(27.3%), '정책에 대한 정보부족'(25.3%), '이용할 필요 못 느낌'(18.2%) 등이 높은 비중 차지

지원정책 이용경험



-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46% 수준으로 나타남

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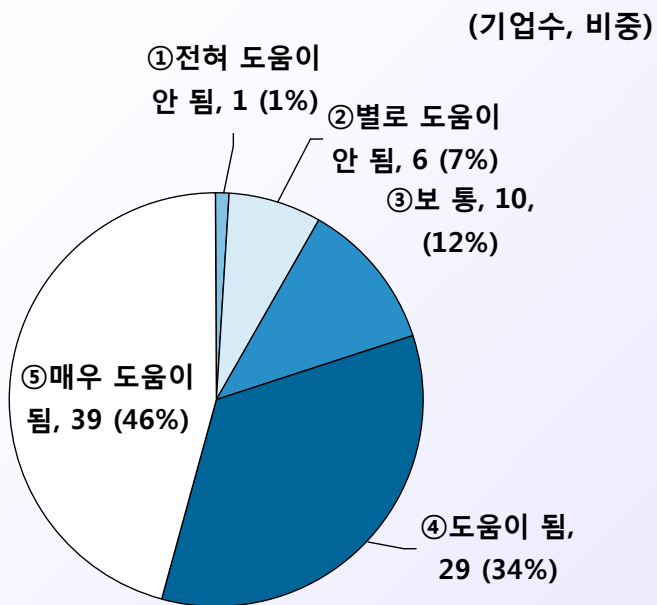
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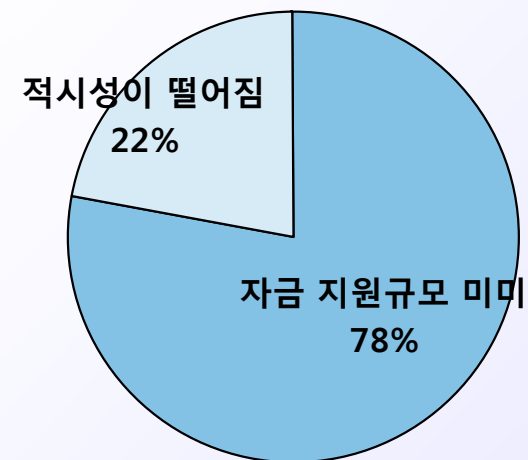
(2) 정책 효과성

정부의 지원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대다수(80%)임.
(※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들(8%)의 이유는 자금지원 규모 미미임)

이용정책의 효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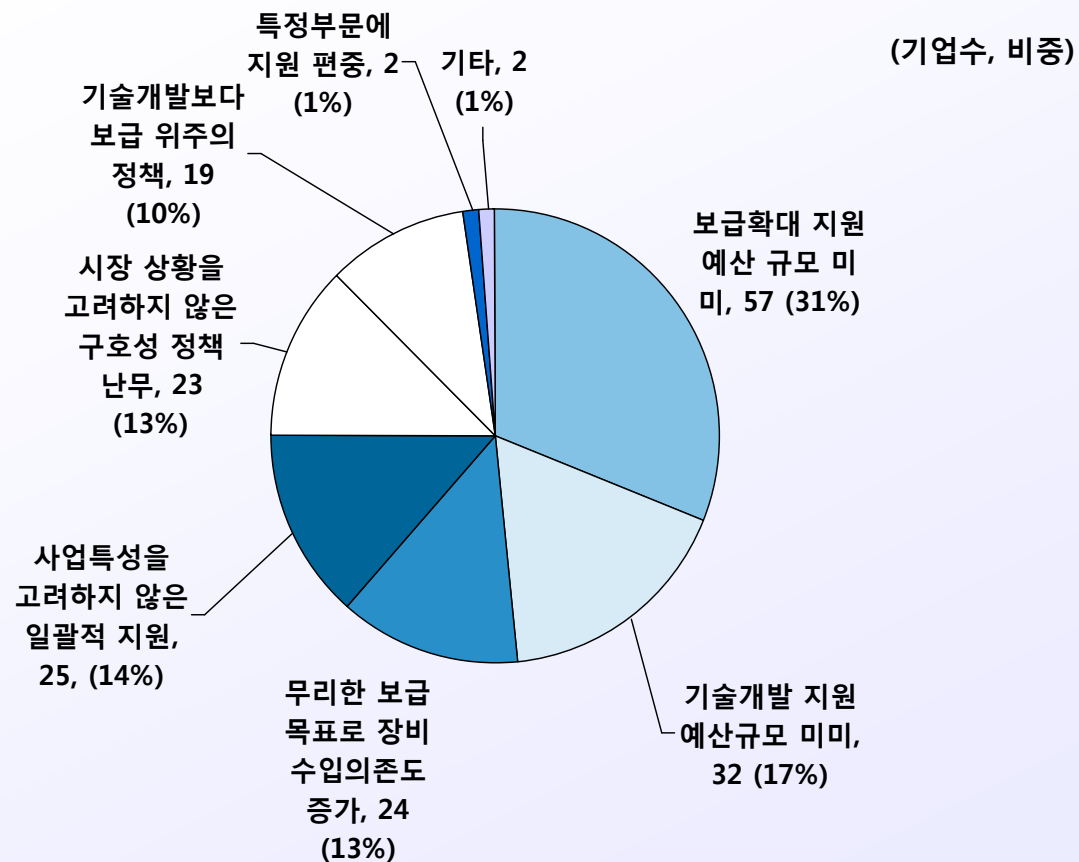


※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



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급확대,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규모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

현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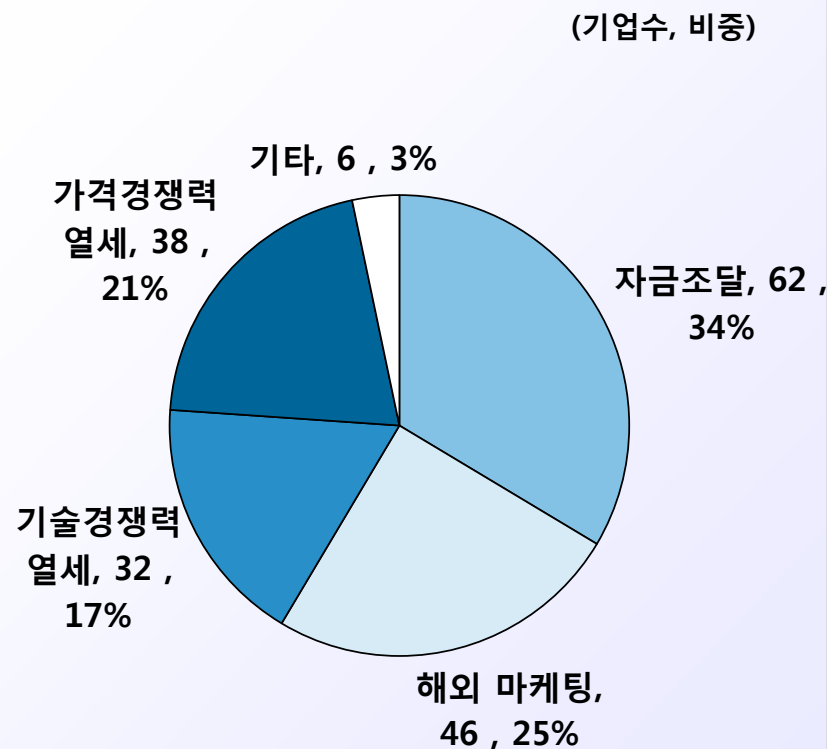
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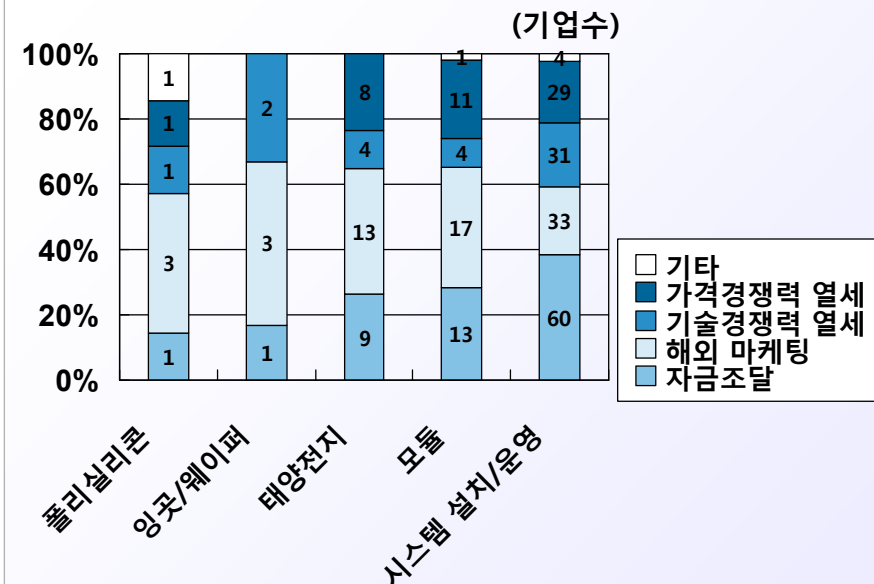
(4) 수출애로사항

수출화 및 수출확대 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(33.7%), 해외마케팅(25.0%), 가격경쟁력 열세(20.7%) 등으로 나타남

수출애로사항



Value Chain별 수출애로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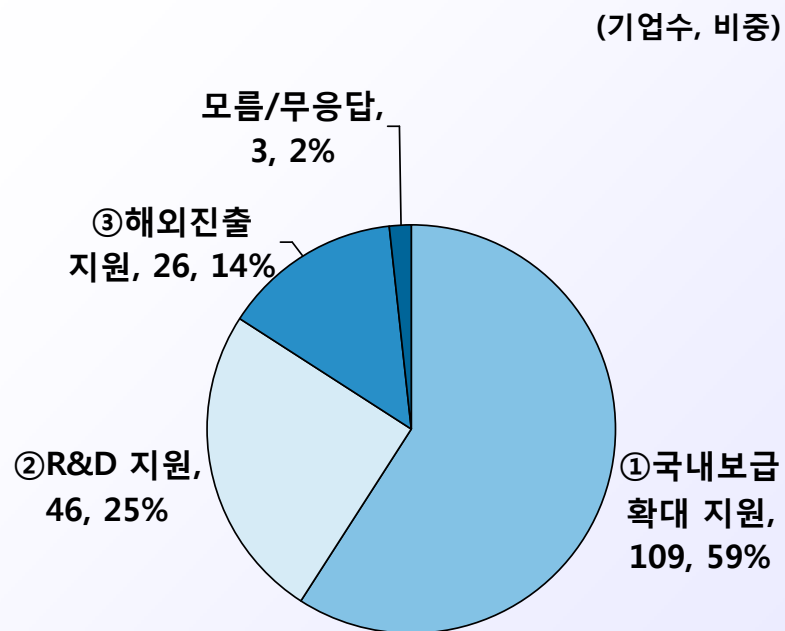
- 시스템 운영/설치('자금 조달', 38.2%)를 제외한 모든 Value Chain에서 '해외마케팅'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큼
- 태양전지와 모듈 업체의 경우에는 '가격경쟁력 열세'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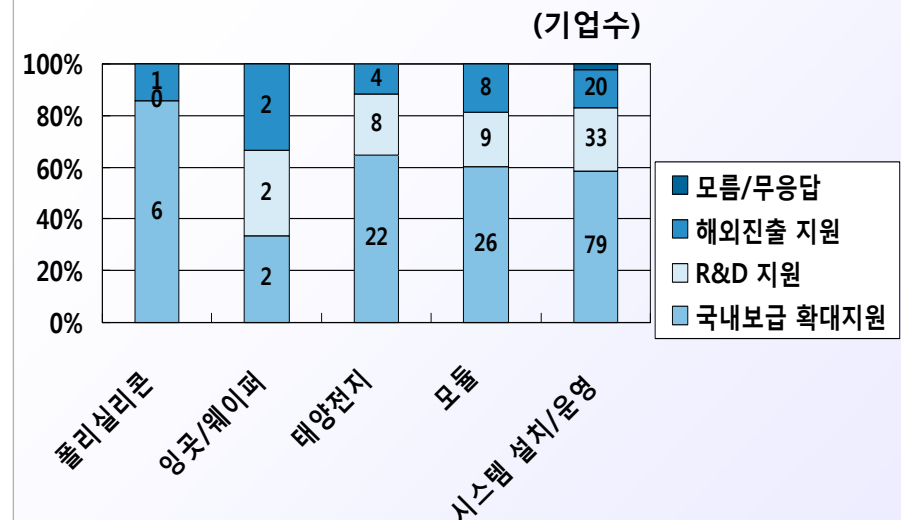
(5) 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

수출화 지원정책 중 '국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'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음

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Value Chain별
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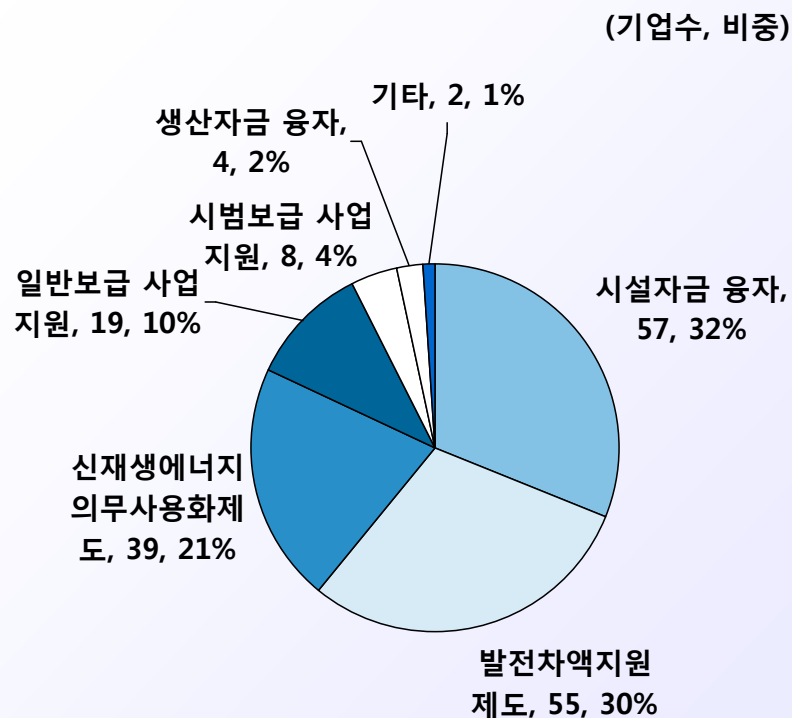
- 폴리실리콘 업체 대부분(85.7%)이 국내보급 확대 지원을 요구
- 잉곳/웨이퍼 업체는 해외진출 지원(33.3%) 요구가 타 Value Chain 대비 높음
- 기술수준이 낮은 Downstream은 국내보급 확대와 기술력 확보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봄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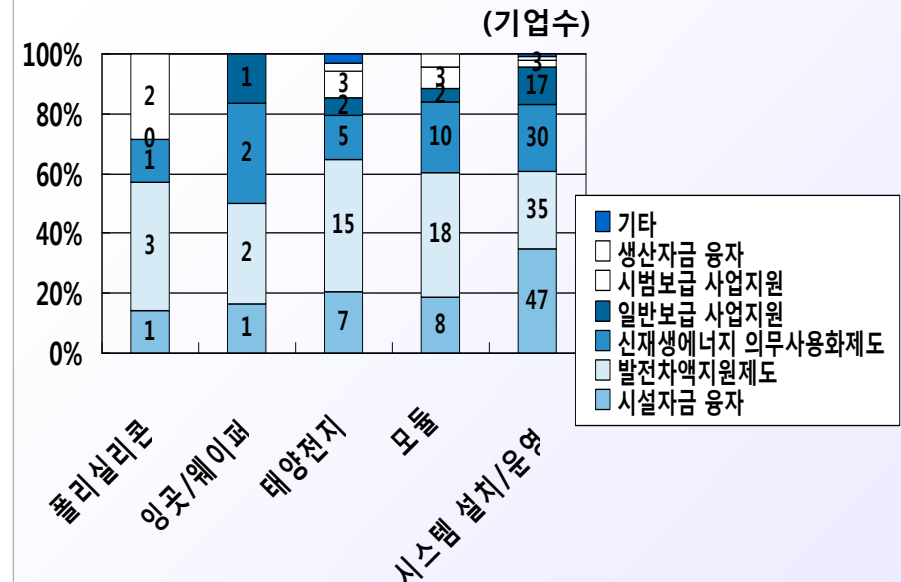
(5) 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 ① 국내보급 확대

정책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문인 '국내 보급확대'를 위해서는 시설자금 용자(31.0%)와 발전차액제도(29.9%)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

보급확대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Value Chain별 보급확대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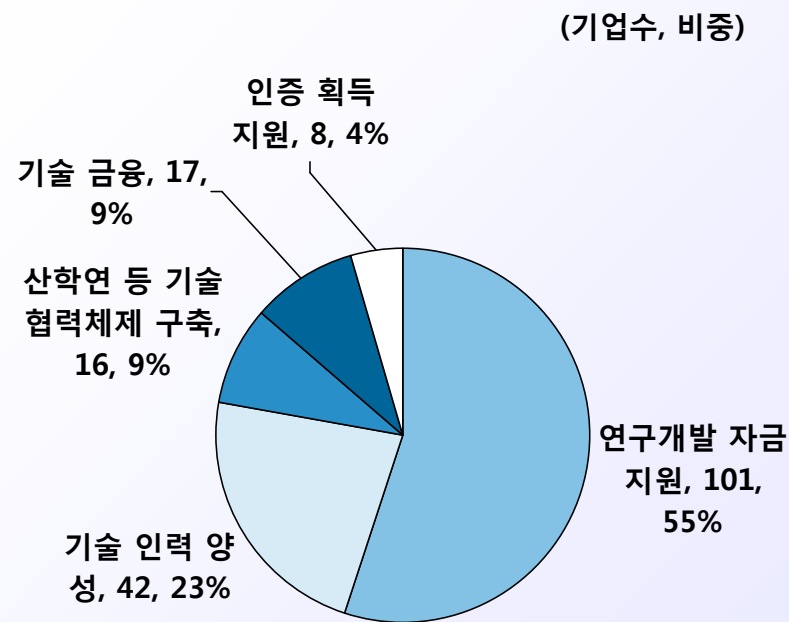
- 시스템 설치/운영 업체는 시설자금 용자(34.8%)를 가장 많이 요구
- 그 외 Value Chain 업체들은 모두 발전차액제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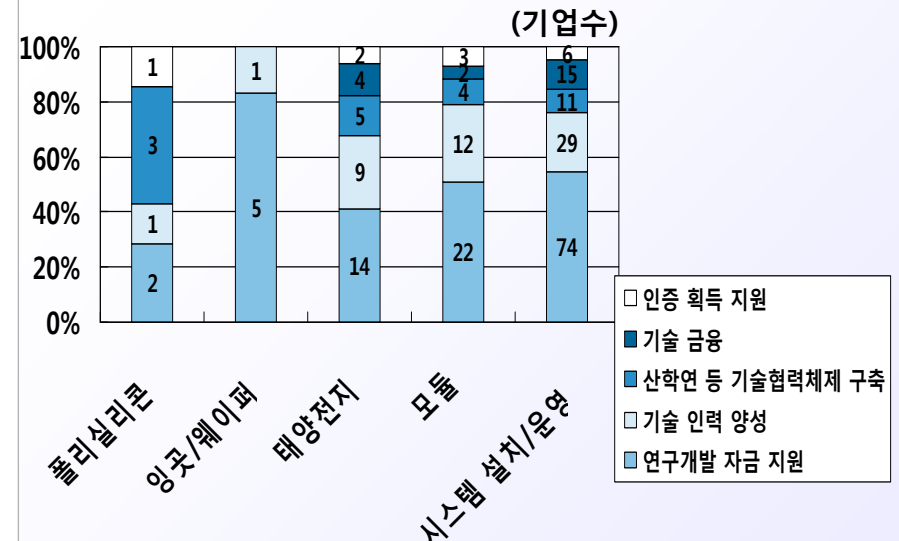
(5) 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 ② R&D

선진기술 대비 낮은 기술력 제고를 위해 R&D 자금 지원(54.9%), 기술인력 양성(22.8%)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

R&D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Value Chain별 R&D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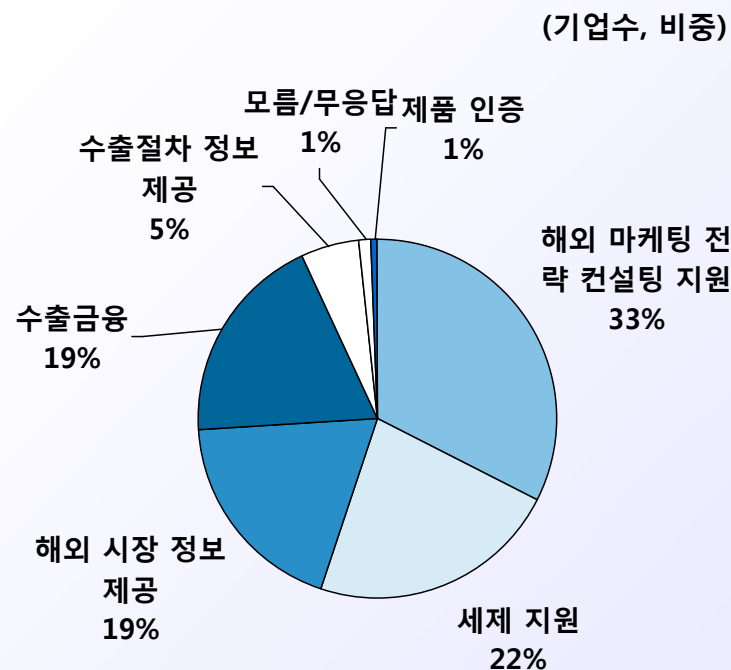
- 폴리실리콘 업체는 자금지원(28.6%)보다도 산학연 등 기술협력체제 구축(42.9%)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음
- 잉곳/웨이퍼는 자금지원 요구가 매우 높음
- Downstream 업체는 기술인력 양성, 기술금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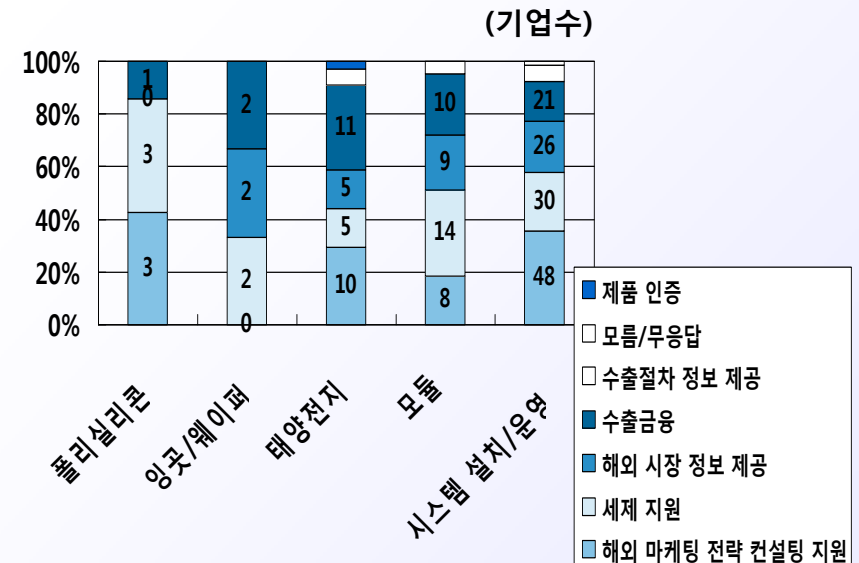
(5) 수출화 지원정책 요구사항 ③ 해외진출

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사항은 해외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(32.6%)이 가장 높으며, Value Chain별 요구사항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

해외진출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Value Chain별
해외진출 지원정책 요구사항



- 폴리실리콘, 시스템 설치/운영 업체는 해외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
- Downstream 업체는 해외시장정보 제공, 수출금융에 대한 요구가 낮음

I. 설문조사 개요

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
1. 기업 현황

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
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
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1) 투자자금 조달방법

(2) 금융정책 이용 현황

(3) 금융정책 효과성

(4) 수출화에 필요한 금융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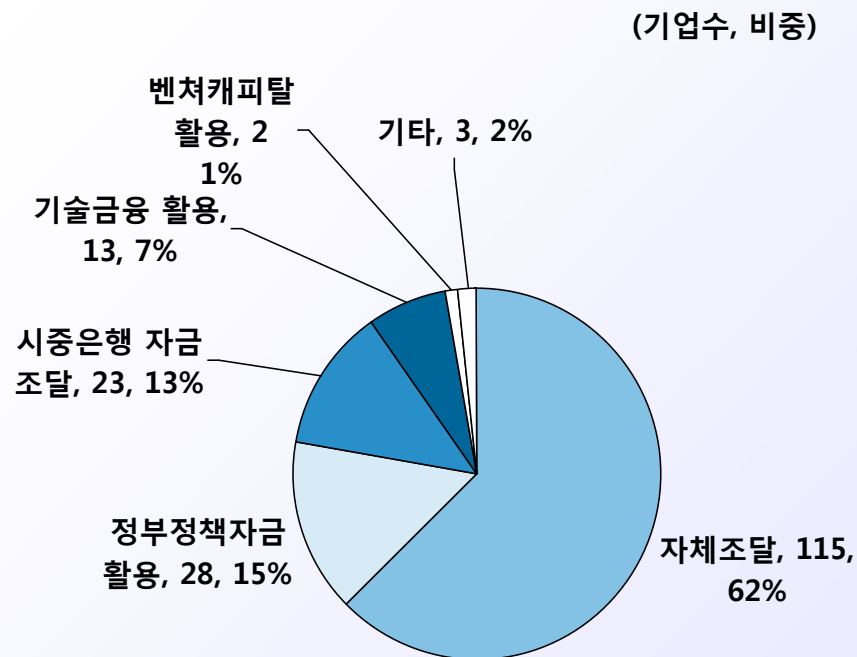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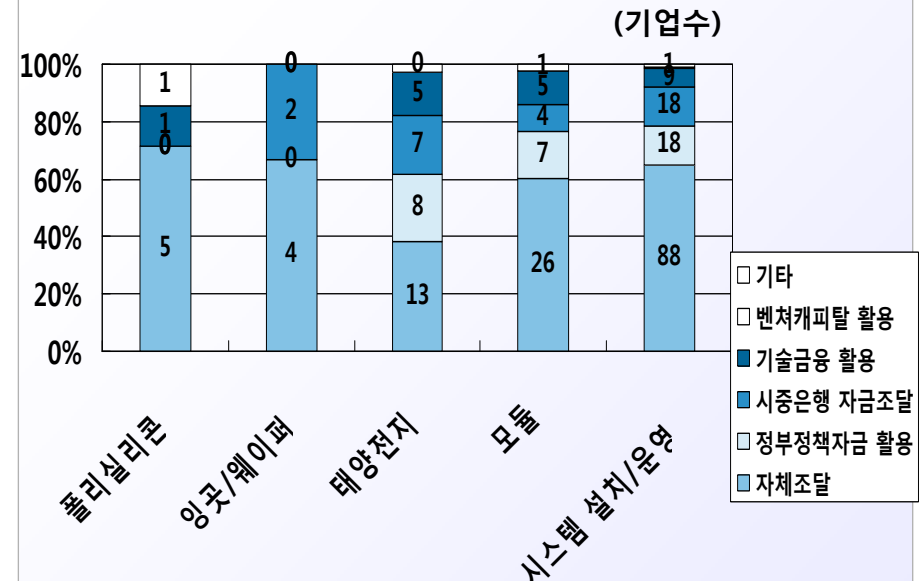
(1) 투자자금 조달방법

사업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조달한다고 응답한 비중(62.5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정부정책자금 활용은 15% 수준임

투자자금 조달방법



Value Chain별
투자자금 조달방법



- Upstream과 Downstream 업체 모두 자체조달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
- Downstream 업체의 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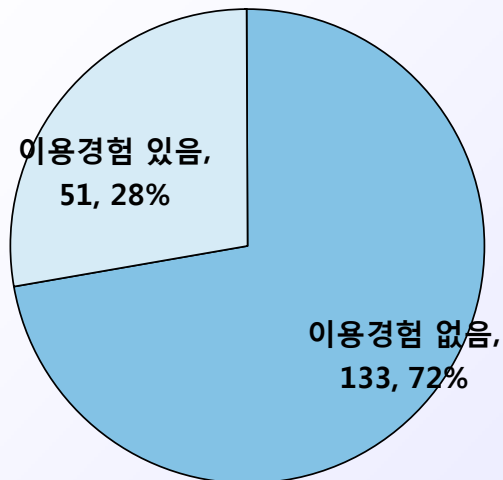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(2) 금융정책 이용현황

태양광 관련 기업 중 27.7%가 현재 정부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금융정책 이용 빈도가 낮으나, 폴리실리콘 업체의 이용 비중은 매우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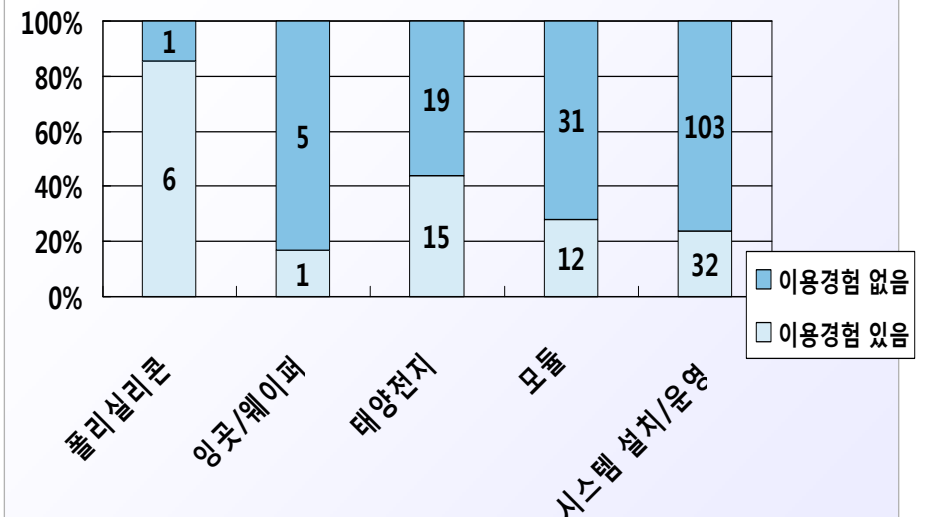
금융정책 이용경험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
금융정책 이용경험

(기업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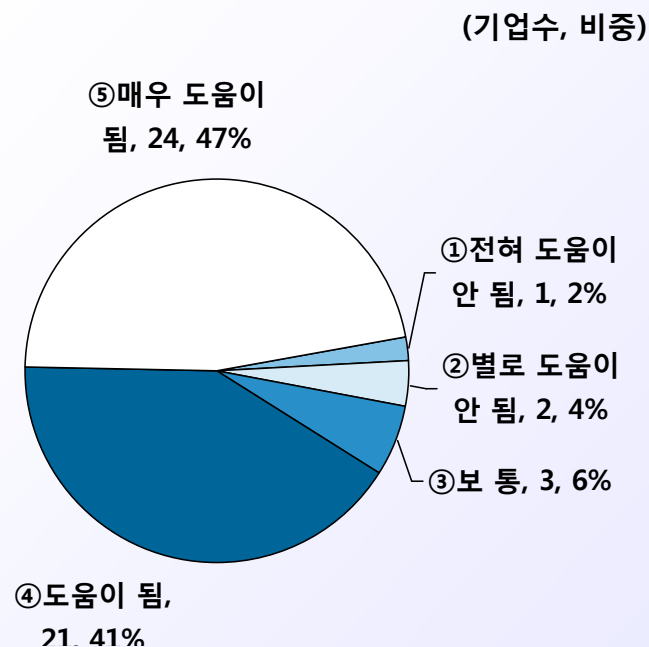
- 폴리실리콘(85.7%), 태양전지(44.1%) 업체의 이용 비중이 높음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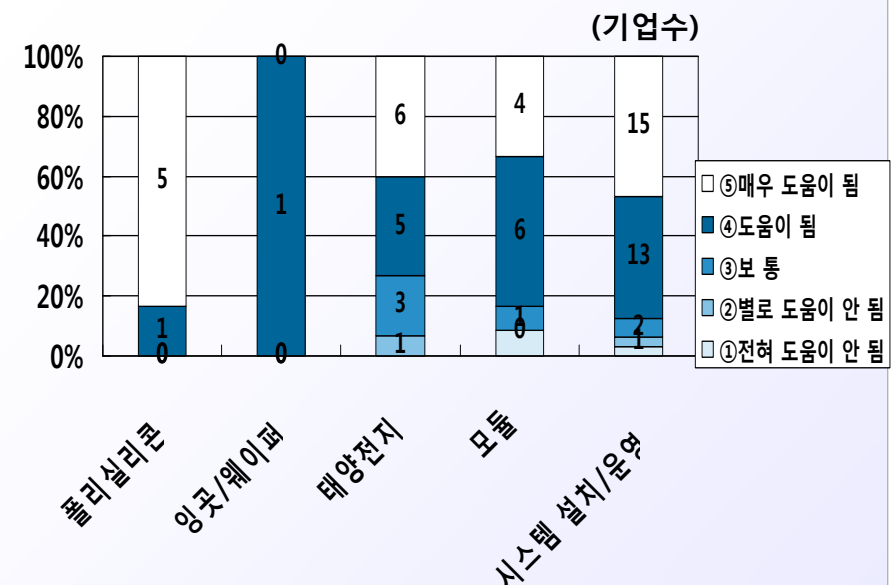
(3) 금융정책 효과성

금융정책을 이용한 기업의 대부분(88%)은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특히 Upstream 업체가 긍정적으로 응답

이용정책의 효과성



Value Chain별 이용정책의 효과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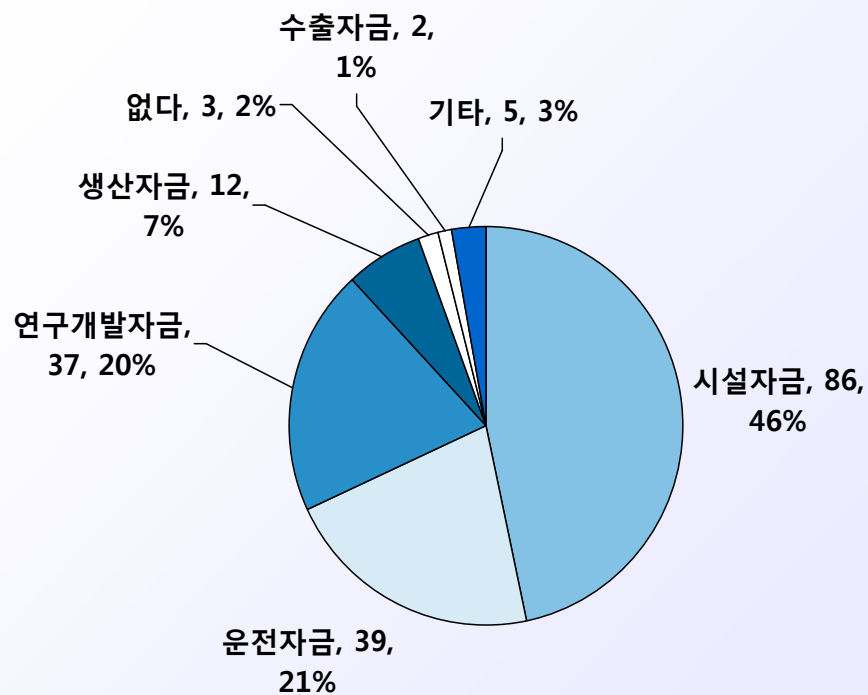
- 폴리실리콘 업체는 금융정책 효과성을 매우 높게 판단
- Downstream은 금융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나타남

<참고> 금융수요

금융수요로는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(46.7%)가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(21.2%)가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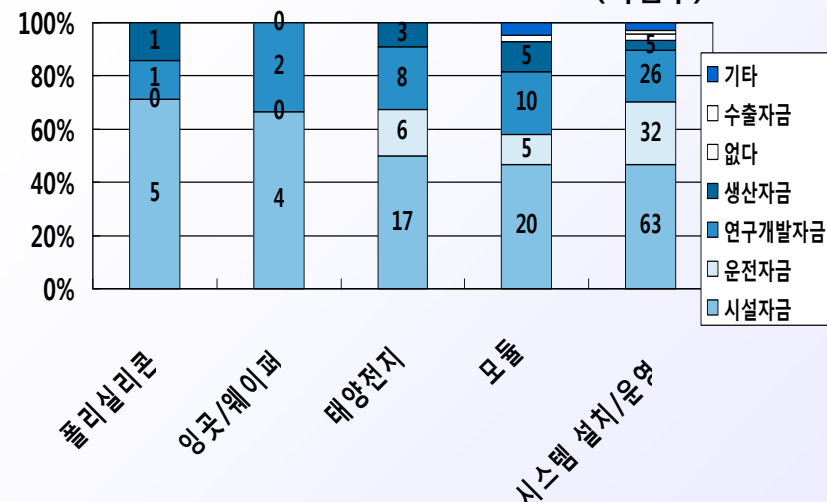
금융수요

(기업수, 비중)



Value Chain별 금융수요

(기업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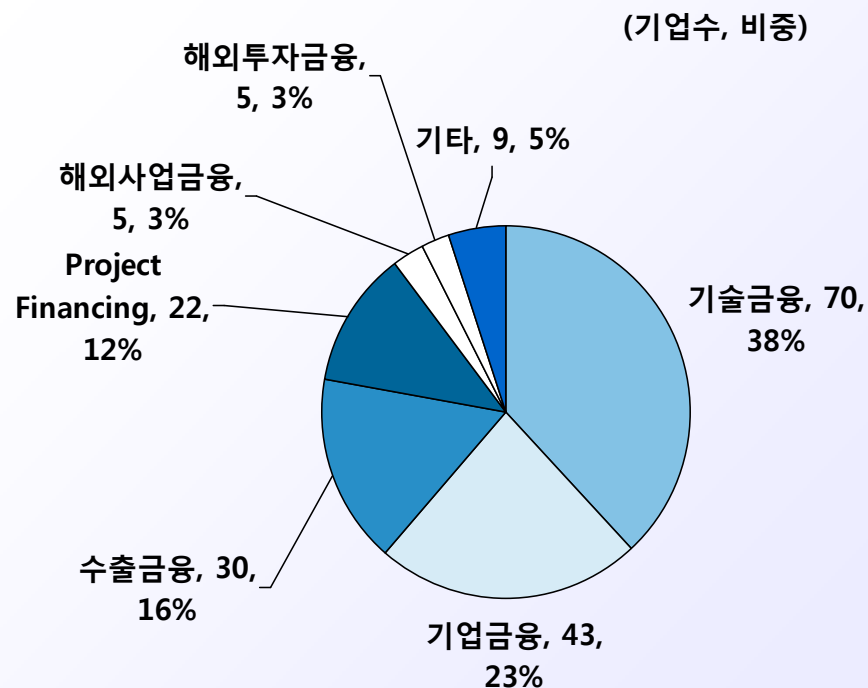
- 모든 Value Chain에서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,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수요도 모든 Value Chain에서 나타남
- Downstream에서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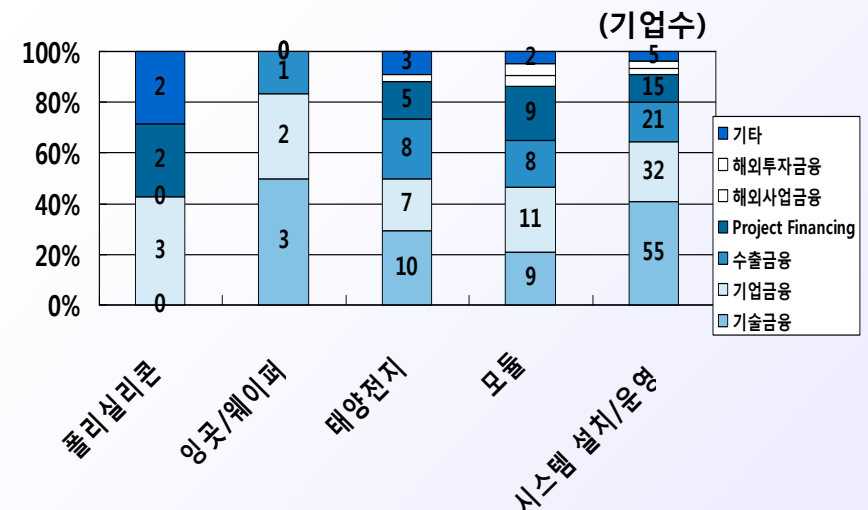
(4) 수출화에 필요한 금융상품

기술금융, 기업금융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Value Chain별로 상이한 사업단계에 있는 만큼,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금융상품에도 차이가 발생

수출화에 필요한 금융상품



Value Chain별
수출화에 필요한 금융상품



- Upstream 업체는 기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
- Downstream 업체는 기술금융, 기업금융, 수출금융 등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게 나타남

- I. 설문조사 개요
- II. 설문결과를 통해 살펴본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
 - 1. 기업 현황
 - 2. 태양광 사업의 시장성/경제성
 - 3. 관련 기업의 기술력 수준
 - 4. 지원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 - 5. 금융정책 현황 및 요구사항
- III. 설문조사 시사점

III. 설문조사 시사점

설문조사 결과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면 내수시장 확대, 해외시장 개척,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1

내수시장 확대

- 국내보급 확대 지원제도 확충
- Roof-top 형식의 소규모 가정용 보급 확대 노력

2

해외시장 개척

-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
- 해외 대규모 발전소 개발을 위한 PF, EDCF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

3

기술경쟁력 확보

- R&D 자금 지원 및 기술인력 양성
-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 강화